

## 중국 시장이 빠르게 식어간다

내수 판매 부진에 수출도 감소세... 한국 대중 수출도 감소 폭 확대  
 글로벌 기업들 '세계의 공장' 탈출... "제로 코로나' 때문만은 아니다"



**산동성과 경제통상협력교류회** 한국무역협회가 11월 9일 서울 코엑스 아셈볼룸에서 개최한 '제6회 한-산동성 경제통상협력 교류회'에서 구자열 무역협회장(앞줄 오른쪽)이 리간제 산동성 당서기와의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날 행사는 서울 코엑스와 중국 지난시 산동호텔을 온라인으로 연결해 이원 생중계로 방식으로 진행됐다. 구 회장은 리간제 당서기에게 "한-중 자유무역협정(FTA)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을 활용해 양 지역 간 협력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면서 "특히 친환경 저탄소 실현을 위한 수소경제 분야 협력이 확대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리간제 당서기는 "양국 수소에너지 분야 협력을 위해 산동성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날 교류회와 더불어 국내 75개사와 산동성의 43개 수출입 기업이 참여하는 온라인 수출입 상담회도 진행됐다. **【사진=한국무역협회 제공】**

중국 시장이 식어가고 있다. 중국 당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지속으로 내수 및 수출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글로벌 금리인상에 따른 여파로 세계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중국 경제를 지탱하던 수출도 줄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중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국의 스마트폰 판매량은 1억4000만 대로 작년 동기 대비 14.4% 감소했다. 3분기

도 7113만 대가 팔리는 데 그쳐 작년 동기보다 11.9% 줄었다. 대표적인 생활소비재 중 하나인 스마트폰 판매 감소는 중국의 소비 시장 침체를 웅변한다.

중국 시장이 식고 있음은 중국 당국이 수입을 늘리겠다고 야심차게 꾸려온 중국국제수입박람회(CIEE)에서도 확인된다. 홍콩 언론은 상하이에서 11월 5일부터 10일까지 열린 연례 이 박람회에 참가한 전 세계 기업 수

가 작년 대비 40% 이상 감소했다고 보도했다. <명보>는 올해 이 박람회에 1700여 개 업체가 참가한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지난해의 2900여 개에 비해 대폭 줄어든 것이다. <명보>의 취재에 응한 박람회 소식통은 "예전에는 참가기업이 3000~4000개에 달했다"며 "(참가기업 감소의) 원인을 특정하기 어렵지만 지금과 같은 국제정세에서 방역·격리 문제 때문만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이미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세계의 공장' 중국을 떠나고 있다. 애플은 최근 무선이어폰 에어팟 조립 생산업체인 중국 고어텍에 대한 위탁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진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미국 기업들이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임으로써 제조 다변화를 추구하는 소위 '중국 플러스 원' 전략을 진행 중이며 유력 후보지로 한국, 베트남, 태국, 멕시코, 인도 등이 꼽히고 있다.

한국의 대중국 수출과 밀접한 함수관계를 갖는 중국의 대외수출도 부진의 늪에 빠

져들고 있다. 중국 해관총서(세관)에 따르면 중국 10월 수출은 지난해 같은 달 대비 0.3% 감소한 2983억7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중국의 월간 수출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돌아선 것은 2020년 5월(-3.3%) 이후 처음이다. 중국의 수출증가율은 상하이 봉쇄 등의 충격으로 4월 3.9%로 급락했다가 5월 16.9%, 6월 17.9%, 7월 18%로 회복했다. 그러다 8, 9월에 다시 한 자릿수로 푹 떨어진 후 결국 10월에 마이너스로 전환됐다.

이는 한국의 대중국 수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올 들어 9월 말까지 대중국 수출은 1211억1521만 달러로 2.7% 증가에 그쳤다. 월별 대중 수출증가율을 보면 중국에 대한 수출 부진 추세는 뚜렷해진다. 중국에 대한 수출증가율은 1월 13.4%, 2월 16.3%, 3월 16.7%로 두 자릿수 플러스 증가를 유지했으나 4월에는 -3.4%를 기록하며 감소세로 돌아섰다. 이어 5월에는 1.3% 증가했다가 6월 -0.8%, 7월 -2.7%, 8월 -5.3%, 9월 -6.5% 등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감소 폭이 커지고 있다.

중국의 10월 대비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2.6% 감소한 470억 달러, 유럽연합(EU) 수출은 9% 줄어든 441억 달러로 선진국에 대한 수출이 크게 부진했다. 반면 중국의 최대 교역 파트너인 아세안에 대한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20.3% 증가한 489억 달러를 기록했다. 또 러시아 수출은 34.6% 늘어난 74억 달러로 집계됐다. **김영채 기자**

### 한국기업, 중국국제수입박람회 참가 반토막

한국기업들의 중국국제수입박람회 참가 열기가 시들해졌다. 중국 시장이 예전만큼 유망하지 못하다는 판단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 박람회의 한국 주관기관인 한국무역협회는 11월 5일부터 10일까지 상하이전시컨벤션센터(NECC)에서 열린 이 박람회에 우리 기업 54개사를 이끌고 참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참가업체 111개사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코로나19 이전인 2018년(1회)에는 190개사가 참가했으며 이듬해인 2019년 270개사로 급증했으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2020년에는 72개사

로 격감했다. 이어 지난해엔 다시 111개사로 늘었다가 다시 격감한 것이다.

무역협회는 올해 코로나19 확산의 진정으로 정상 참가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추진을 했으나 중국의 엄격한 방역 정책으로 인해 한국으로부터의 출장이 여의치 않아 지난해와 같이 중국에 지사·대리상이 있는 기업과 무역협회에 의한 대리운영이 가능한 기업 등으로 한국기업관을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지속에 따른 격리 등의 불편 외에 중국 시장의 경기침체도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영채 기자**

### F&F, '제로 코로나'에도 올 중국 매출 1.1조 원 '깜짝 실적'

패션브랜드 MLB가 중국 내 소비 침체 상황에서도 고성장을 기록하며 아시아 주요 도시로 진출을 확대하고 있다.

F&F는 MLB가 중국 등 해외 시장에서 올해 소비자 판매액 1조2000억 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고 최근 밝혔다. F&F에 따르면 국내 패션기업의 단일 브랜드가 해외 판매액 1조 원을 달성한 건 MLB가 처음이다.



MLB 중국 700호점.

【사진=F&F 제공】

코로나19가 본격 확산된 2020년 중국 시장에 진출한 MLB는 중국 내 봉쇄와 시장 침체 상황에서도 주요 거점 도시를 중심으로 빠르게 매장을 확대해 왔다. 연말까지 매장 수 900개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되며 소비자 판매액도 1조1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MLB는 또 베트남,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아시아 지역 7개국에서도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필리핀, 캄보디아, 인도네시아까지 시장을 확대할 예정이다.

F&F는 "MLB는 K패션의 세계화 가능성을 보여줬다"며 "상품기획과 생산, 디자인 등 전 과정을 디지털화한 전략이 주효했다"고 분석했다. F&F는 이밖에도 골프용품 업체 테일러메이드 인수를 위한 펀드에 전략적 투자자(SI)로 참여하고 테니스 브랜드 세르지오타키니 미국 본사를 인수하는 등 글로벌 시장 개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보근 기자**



상하이에서 열린 중국국제수입박람회장에서 11월 7일 한국의 한 식품업체 부스 직원이 방문객들을 맞이하고 있다. **【사진=신화/연합뉴스】**

# 글로벌 물류 상황 여전히 어렵다... “국내외 화물적체 지속”

수출업계 및 물류업계 관련자와 학계 등 전문가들이 우리 기업들이 처한 글로벌 물류 환경이 여전히 어렵다고 진단하고 규제 완화와 디지털 전환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언을 내놓았다. 한국무역협회가 11월 9일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개최한 '제2차 무역산업포럼'에서다.

무역협회 정만기 부회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금년 7월까지 우리 수출의 세계 순위가 7위에서 6위로 올라가는 등 상대적으로 선전하고 있으나, 구조적 측면에선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세계 수출에서 우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2015년 3.2%에서 2020년 2.9%로 떨어진 뒤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이 0.1%p 낮아지면 취업 인원은 13.9만 명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면서, “2015년 대비 2021년 일자리는 41.6만 명 사라진 것으로 추정된

## 한국무역협회 '제2차 무역산업포럼' 개최

### 23개월 동안 수출입물류종합대응센터 애로 1220건 접수 최근 3년간 수출기업 내륙컨테이너 운임 25~42% 증가 한국 수출, 지난 몇 년간 세계 시장 점유율 0.3%p 하락

(운송사 및 차주)도 아닌 화주가 물건 운송을 부탁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면서 “이러한 점에서 교통안전 효과도 불분명하고 세계에서 유래를 찾기 어려운 제도인 안전운임제는 즉각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출입 물류경쟁력 약화... 구조적 개선 필요 = 한국무역협회는 김병유 회원서비스본부장을 통해 우리나라 수출입 물류

김 본부장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물류비 비중은 2018년 기준 9.4%로 미국(9.1%) 및 일본(7.9%)에 비해 높으며, 2009년(9.7%)과 2017년(9.0%) 대비 뚜렷한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

기업의 매출 대비 물류비 비중은 2005년 9.7%에서 지속해서 하락해 2018년 6.5%까지 떨어졌으나 2020년 7.1%로 다시 상승했다. 2021년 물류대란을 고려한다면 기업의

과제 중 하나로 드러났다. 국내 물류시장의 디지털 성숙도는 농업(14위)보다 뒤쳐진 15위 수준이며, 물류 분야에서의 정보통신기술(IT) 활용률(39.6)도 전체산업 평균(68.4)에 비해 낮았다.

이에 무역협회는 기업 물류비 부담 축소를 위해 ▷물류 시설 노동유연성 확보 ▷물류 디지털 전환(DT) 지원 ▷안전운임제도 일몰 ▷기업 물류현황 정례조사 등 정책 지원을 제언했다.

노동유연성을 위해서는 주요 항만 및 공항 배후지역 창고에 대한 주52시간 근무제 특례업종 지정 및 외국인노동자 고용 확대를 제시했다. 또 국가 주요 물류 데이터 표준화 및 통합 운영과 혁신 스타트업의 물류 디지털 플랫폼 활용 지원을 통한 디지털 전환 방안을 내놓았다.

국내 물류비 안정을 위해서는 안전운임제 일몰 후 새로운 제도 도입, 화주에 대한 일방적 부담 완화, 안전운임위원회 등 운영제도 합리화, 도로안전에 대한 대안 논의 등이 필요하다고 봤다. 그밖에 기업의 물류현황 및 전망, 주요국 물류정책 등의 정례조사를 통한 기업 애로 적시 파악 및 개선안 건의 등도 꼽았다.

●지속 가능한 운임체제 위한 토론토 = 정책 토론회에서 '국내 화물운송 시장 발전방안' 발제에 나선 교통연구원 이태형 박사는 “지속 가능한 화물운송시장 체제 조성을 위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관련법 정비, 허가번호 체계 표준화 등 통합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 '안전운임제도의 개선방안 연구'를 발제한 교통정책경제학회 박민영 교수는 “안전운임위원회에서 운송공급자(차주 및 운수사)와 수요자(화주)의 의견이 동등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재정비해야 한다”면서 “운송원가 항목을 단순화하고 객관적인 원가 조사가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기업의 물류비 증가는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국민경제에도 영향을 주는 만큼, 안전운임제가 지속 가능한 제도로 발전할 수 있도록 사회적 토론과 합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에 참여한 한 자동차부품 기업은 “글로벌 물류대란으로 미국행 배의 선적 공간이 없어 수출에 큰 차질을 빚었고, 겨우 확보한 선적 공간마저도 단기간의 물류비 폭등으로 과거에 비해 6~7배 비싼 운임을 지불해야 했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또 다른 중소기업도 “물류대란으로 항공 및 해상운임이 많이 오르면 가운데육상 운임마저 급등해 물류비 부담이 매우 크다”며 “수출 시장에서 중국 등 경쟁국과 1% 이하의 소수 점대 이익률을 두고 원가 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물류비용이 오르면 기업은 그나마 남은 이익도 포기해야 한다”고 한탄했다.

또 “예전에는 운송 계약 기간 및 물량에 따라 운임 협상이 가능했으나, 안전운임제 시행 이후 운임 율표를 강제로 따를 수밖에 없어 기업이 체감하는 운임 상승률은 실제 인상분보다 훨씬 크다”고 말했다.

한 시멘트 기업은 “시멘트 업계 육상 물류비가 안전운임제 시행 이후 40% 넘게 인상됐음에도 불구하고, 운송거부 등으로 인한 전용 차량 부족현상으로 물류비 추가 인상 압박이 거세다”면서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김영태 기자



11월 9일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개최된 '제2차 무역산업포럼'에서 무역협회 정만기 부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무역협회 제공】

다”고 말했다.

이어 “각종 독특한 기업규제 신설, 노동유연성 약화 등으로 우리 기업이 해외로 떠나감으로써 수출산업기반이 약화되고 양질의 일자리도 많이 사라졌다”고 강조했다.

안전운임제에 대해서는 “특히 대기업 하청업체나 식품·가구·고구·금속가공 등 영세 수출업체들은 운송비 증가 등 물류비 애로를 수출경쟁력 약화의 핵심 요인 중 하나로 지적하고 있다”며 “화물연대 등 집단의 힘으로 애로를 타개해가는 차주들과 달리, 흩어진 다수의 영세 수출업자들은 차주나 정부 또는 정치권의 눈치를 보면서 애로를 제대로 호소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또 “정책결정자들은 사회적 약자 간 이해충돌 사안에 대해서는 집단압력 등에 좌우되지 않고 냉정한 시각으로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고 주문하면서 “추후 시장 왜곡을 초래하는 규제보다는 민간의 자율적 역량과 시장의 힘을 믿고 시장기능에 맡기는 방법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안전운임제에 따르면, 계약당사자

동향 및 경쟁력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팬데믹이 촉발한 글로벌 물류대란으로 기업들의 선복 확보 및 화물적체 애로가 심화되고 물류비가 급증하던 중, 러·우 전쟁의 발발로 글로벌 공급망이 또 한 번 충격を受けた”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2022년 8월 기준 미국 서부 LA항의 컨테이너 체류일이 5일 이상인 경우가 여전히 25%에 달하며, 부산항은 수출화물의 컨테이너야드(CY) 반입을 '선박입항 3일 전'으로 제한하는 등 국내외의 주요 물류시설의 화물적체 및 처리 지연이 계속되고 있다.

김 본부장은 “무역협회의 올해 4분기 수출산업경기전망지수(EBSI) 조사에 따르면, 기업들은 원자재 가격 상승(25.4%)에 이어 물류비 상승(18.0%)을 두 번째로 큰 애로 요인으로 꼽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무역협회 수출입물류 종합대응센터에도 화물적체로 인한 비용증가, 화물운송 적시성 저하, 대형장비 및 중고차 등 특수물품 수출운송등의 애로가 2020년 12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1220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매출 대비 물류비 비중은 더욱 커졌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어 그는, 기업의 물류경쟁력 약화 요인으로 ▷높은 도로운송비 ▷물류 규제 및 불합리한 시장구조 ▷물류 인건비 증가 ▷저조한 디지털 전환 수준을 꼽았다.

기업의 물류비 항목 중 운송비 지출액에서 '도로'가 차지하는 비중은 81.8%로 해운(13.6%), 항공(4.4%), 철도(0.3%)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대기업의 운송비 지출 중 도로의 비중은 61.8%였으나 중소기업은 86.5%로 기업의 규모가 작을수록 더 큰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20년부터 시행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로 최근 3년간 수출기업의 컨테이너 내륙운송 운임은 25~42%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화주-1차 운송사-2차 운송사-주선사-차주'로 구성된 운송시장의 다단계 시장구조와 지입제 문제, 엄격한 화물차 총량규제 정책 등이 기업의 물류비를 증가시키는 원인으로 지적됐다.

디지털 전환도 우리 물류업계의 최우선

# 대호주 수출 '독야청청'... 1~9월 142억8605만 달러로 115% ↑

하반기 들어 전반적으로 수출이 부진세에 접어든 가운데, 호주로의 수출이 급증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https://stat.kita.net)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1~9월 호주로의 수출은 142억8605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114.8% 늘었다.

호주에 대한 수출은 2017년 198억6165만 달러로 역대 최고를 기록한 이래 2018년(96억1043만 달러, -51.6%), 2019년(78억9057만 달러, -17.9%), 2020년(61억8853만 달러, -21.6%) 3년 동안 연속 크게 줄어 들었다. 하지만 지난해 97억5048만 달러로 57.6% 늘어난 데 이어 올 들어서는 세 자릿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상위 20대 수출대상국 가운데 같은 기간 세 자릿수 수출증가율을 기록한 나라는 호주가 유일하다.

호주에 대한 수출 호조는 다른 나라로의 수출이 부진세에 접어든 하반기 들어 더 눈에 띈다. 지난 7월 한 달 동안 호주로의 수출은 19억6463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18.4% 늘었다. 이 기간 최대 시장인 중국으로의 수출증가율은 -2.7%, 홍콩으로의 수출증가율은 -41.4%였다. 이어 8월 호주로의 수출은 17억6685만 달러로 지난해 8월보다 161.5% 증가했다. 같은 기간 중국으로의 수출은 -5.3%, 홍콩으로의 수출은 -42.9%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지난해까지 최상의 증가율을 기록했던 베트남으로의 수출도 -2.4%의 증가율을 보였다.

9월에도 호주에 대한 수출은 16억732만 달러로 100% 증가율을 기록했다. 9월 중국과 홍콩에 대한 수출증가율은 각각 -6.5%, -25.4%를 보였다. 베트남으로의 수출증가율도 -6.4%였다.

호주에 대한 수출은 석유제품과 자동차가 주도하고 있다. 호주로의 석유제품 수출은 지난해 35억4301만 달러로 132.8% 늘어난 데 이어 올해는 9월 말까지 82억435만 달

석유제품·자동차가 주도... 현지 금리인상으로 소비심리 위축돼 연말부터 경기침체 우려



2022년 11월 6일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 포브스 타운이 홍수로 물에 잠겨 있다. 한국의 대 호주 수출이 올 들어 세 자릿수 증가율을 이어가고 있으나 금리인상에 따른 현지 소비심리 위축으로 향후 전망은 예단하기 어렵다. 【사진=EPA 연합뉴스】

리로 270.8%나 늘었다. 자동차 수출은 지난해 24억4893만 달러로 37.8% 증가한 데 이어 올해는 9월 말까지 23억8394만 달러로 30.3% 증가했다. 석유제품과 자동차 수출이 호주에 대한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4%에 달한다.

세부 품목별로는 석유제품의 경우 올해 들어 9월 말까지 경유가 56억9646만 달러로 275.1%, 휘발유가 12억5270만 달러로 171.7%, 제트유 및 경유가 11억4227만 달러로 843.1%, 윤활유가 7847만 달러로 21.1% 늘었다. 자동차는 같은 기간 승용차가 21억8283만 달러로 27.5%, 전자자동차가 9289만 달러로 107.7%, 화물차가 7922만 달러로 10.4% 증가했다.

한편 올 들어 9월 말까지 대호주 수출과 수입을 합친 무역규모는 484억4385만 달러

로 중국(2383억4298만 달러), 미국(1447억6094만 달러), 베트남(674억189만 달러), 일본(652억4961만 달러) 다음으로 5위다.

하지만 호주중앙은행(RBA)의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소비심리가 갑작스럽게 위축되면서 향후 대호주 수출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호주 4대 은행 중 하나인 웨스트팩 뱅크가 멜버른 연구소와 함께 10월 31일부터 나흘간 18세 이상 1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11월 소비자 신뢰도는 78에 그쳤다. 이는 직전월보다 6.9% 감소한 수치로 2008년 세계금융위기 당시의 79보다 낮은 수준이다.

소비자 신뢰도가 가장 많이 추락한 부문은 부동산으로 최근의 집값 하락세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또 비관적인 경제 전망으로 40%에 가까운 응답자들이 선물·외식·여

## ■ 대호주 월별 수출실적 (단위: 천달러, %)

월	수출액	증가율
1	1,061,363	70.8
2	1,090,514	74.4
3	1,673,035	130.6
4	1,572,834	105
5	1,970,570	188.8
6	1,578,930	86.2
7	1,964,624	118.4
8	1,766,853	161.5
9	1,607,324	99.7

(자료=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행 비용 등을 대폭 줄일 계획이라고 답했다. 관측통들은 연말부터 금리 인상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가계 소비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성탄절 등 특수가 실종되고 경제침체가 본격화되기 시작할 것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김영채 기자

## [오피니언] B/L 발급 지연, 언제까지 이대로 둘 것인가

### 'CFS 입고 시 효력 발생' 등 국제규범 새로 만들어야

수출입 물류의 이동은 주로 항공, 선박 그리고 육로 운송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는 99% 이상이 선박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필자의 회사 역시 제품 특성상 주로 선박(해상운송)을 활용하여 수출 및 수입을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수출 운송물을 해상운송인에게 인도한 후 (물품 인수 확인과 동시에) 소지인에게 운송물의 인도를 약속하는 선하증권(B/L)을 발급받은 다음, 약속된 관련 수출 서류를 구비해 세관, 은행 및 수입 거래처 등에게 제출하는 무역 사무 업무와 수출 대금 수령의 절차를 거쳐 해당 업무를 마감하게 된다.

이러한 일련의 수출 사무 업무 중에서 국내에서 제품의 생산 완료와 함께 출고하여 선박회사가 지정한 일시 및 장소인 CFS(Container Freight Station)까지의 도착은 사실상 수출자가 수입자와 약속한 납기 의무의 종결이다. 이와 함께 대금 수령의 정당한 권한 행사를 통해 발생한 수출

대금으로 자재 대금과 임금 등의 관리비용을 결제하며, 또 다른 생산과 수출 활동을 지속 가능하게 된다.

그런데, 코로나19 사태와 함께 촉발된 글로벌 물류대란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각국의 수출입 화물 처리 및 통관 업무 지연 사태로 대다수의 수출 기업은 해상운송인이 지정한 장소에 출고하고도 길게는 한 달여 동안 B/L을 발급 받지 못하는 불편을 겪어야 했다. 더 큰 문제는 엔데믹(endemic, 코로나 팬데믹의 종료)이 가시화되는 현재까지도 이런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더구나 기대와는 달리, 여전히 괄목할 만한 개선이 요원한 상태이다.

지속적인 출항 지연의 문제는 선하증권 발행 지연으로 이어져 수출기업들에게 많은 문제를 야기한다.

예를 들면 1) 생산 완료 및 출고 이후 수출 결제 대금 수령 지연에 따른 금융 부담의 과중과 2) 막연히 연장되는 수출 서류 작성, 관세기관 발급 서류 신청 및 취합 등의 수출사

무투입 노동력의 손실과 같은 문제이다. 나아가 이는 3) 수입국에서 예정된 입항 및 통관 지연으로 인한 납품 약속 불이행과 이에 따른 제반 문제와 4) 수입거래처에 대한 수출자 신용도 하락 등으로 이어진다. 이로 인해 파생되는 유통시장 교란은 수출기업들을 어렵게 진척한 시장에서의 퇴출 위험에 공공연히 노출시킨다.

최근 정부는 규제 해소를 통해 기업 및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돕고자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시도하고 있다. 앞서 제기한 해상운송에서의 B/L 발급 지연과 이로 인해 파생되는 제반 문제는 고환율과 치솟는 인플레이션과 함께 사상 최대의 수출 감소에 직면한 무역업계의 시급한 해결 과제이지만, 아무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 문제는 한 나라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세계무역기구(WTO) 같은 국제기구가 나서야 하며, 우리나라 같은 교역대국이 앞장서서 국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에 나서야 할 숙제다. 가령 B/L의 효력 발생 시작점을 수출업체가 수출 운송물을 CFS에 입고하는

시점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물론 부두나 CFS에 대한 국제인증과 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관리가 선행되어야 할 문제이다.

어려운 대내외 환경에서도 수출 오더를 수주하고, 자재를 확보하고, 완벽한 품질 관리 하에 제품을 생산하고, 엄격한 근로 관리로 납기를 지키기 위해 애쓰는 우리 수출기업들의 노력이 정당한 대가가 주어지도록 WTO와 같은 국제기구와 함께 변화된 국제 물류 환경에 적합한 해상운송 선하증권 규정 개정 검토 심의를 촉구한다.



안태식 | 더존무역(주) 대표이사 · 한국무역협회 대 전세종충남기업협회 사무총장

# 실리콘밸리에서 디지털 수출길을 열다

## KOTRA, 'K-Global@실리콘밸리' 개최... ICT 상담회 · 포럼 · 스타트업 IR 진행

KOTRA가 국내 디지털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K-Global@실리콘밸리 2022'를 미국 실리콘밸리 현지에서 11월 7~8일 개최했다.

2012년 처음 개최돼 올해로 11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 KOTRA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주관하고, 국내 디지털 기업과 기관, 미국 현지 글로벌 기업과 투자사, 기관, 언론사 등 총 500여명이 참가했다.

이 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2년간(2020~2021) 온라인으로 진행됐으나, 올해는 3년 만에 실리콘밸리 현지에서 오프라인으로

개최됐으며 수출상담회, ICT 혁신포럼, 스타트업 피칭대회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

행사 이틀 동안 진행된 수출상담회에서는 콘텐츠·플랫폼·AI·디지털 장비 등 국내 ICT 기업 30개사가 메타(Meta), 구글(Google), 애플(Apple), 엔비디아(NVIDIA), 아마존(Amazon) 등 글로벌 기업과 투자사 등 미국 현지기업 150개사를 대상으로 제품·서비스를 전시하고, 일대일 상담회를 진행했다. 국내 메타버스 솔루션 A사가 현지 유통기업과 100만 달러 규모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는 등 한국의 AI·데이터 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이외에도 코스메틱 플랫폼 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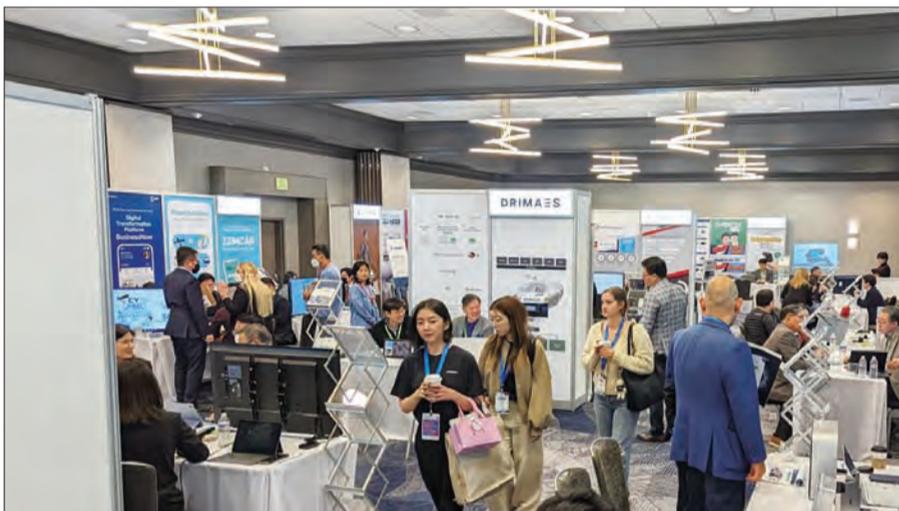
사, 웹소셜 플랫폼 C사, 비주얼아트 서비스 D사 등 총 6개 기업이 현지 바이어와 업무협약을 맺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향후 미국 시장에서 더 큰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첫날인 7일 오후에는 '당신의 메타버스'라는 주제로 ICT 혁신포럼이 개최됐다.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의 주요 과제(메타버스로 디지털 신영토 개척) 중 하나인 메타버스를 주제로, 구글, 네이버제트, 엔비디아 등 한국과 미국을 대표하는 디지털 기업이 메타버스 산업의 최신 현황에 대한 주제발표를 진행했으며, 주제발표 이후에는 현지 스타트업, 벤처캐피탈 관계자가 실리콘밸리 메타

버스의 미래에 관한 토론을 진행했다. 포럼 현장에는 미국 디지털 기업, 스타트업, 언론, 투자자 등 ICT 분야 관계자 약 350명이 참석하여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둘째 날에는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 내 주요 과제 중 하나인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는 K-디지털 실현'의 후속 조치로, 미국 진출 및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국내 디지털 기업 12개사가 참가하는 'K-Pitch'와 글로벌 디지털 기업이 경쟁하는 'I-Pitch' 등 2개의 피칭대회가 진행됐다. 이때 국내·외 주요 벤처캐피탈(VC)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

정외영 KOTRA 혁신성장본부장은 "실리콘밸리는 글로벌 혁신을 주도하고 있으며, 미국 디지털 시장은 전 세계 시장의 34%를 차지하고 있다"며 "KOTRA는 우리 ICT 기업이 실리콘밸리를 통해 해외진출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IT지원센터 등을 활용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채 기자



11월 7일 'K-Global@실리콘밸리 2022' 상담회장에서 부스별로 상담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KOTRA 제공】



실파 콜하트카(Shilpa Kolhatkar) 엔비디아 글로벌 헤드가 11월 7일 주제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KOTRA 제공】

# 정부, 미에 "반도체 수출통제 불확실성 없애 달라"

## 한미 1차 수출통제 워킹그룹 회의... 미 상무부 켄들러 차관보 참석

정부는 11월 8일 서울에서 미국 상무부와 제1차 한미 수출통제 워킹그룹 회의를 열어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통제가 한국 반도체 업계에 미치는 여파를 진단하고 불확실성을 해소할 공조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5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산업부와 미 상무부가 체결한 한미 공급망·산업대화(SCOD) 양해각서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우리 측 대표로는 문동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이, 미국 측에서는 테아 켄들러 상무부 수출관리 담당차관보가 각각 참석했다. 켄들러 차관보는 중국 통신장비업체인 화웨이 명안저우 부회장과 관련된 형사사건에서 미 법무부 측을 대리했던 인물로,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수출통제 조치 실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양국 대표는 수출통제 관련 법령·제도 정보를 교환하고 양자·다자차원의 수출통

제 공조를 강화할 방안을 거론했다. 또 대러시아 수출통제 이행상황도 점검했다. 대중국 반도체 수출통제에 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미 상무부는 10월 7일 중국의 반도체 기술 확보를 막고자 미국기업이 중국의 반도체 생산기업에 반도체 장비를 수출하는 것을 사실상 금지하는 새로운 수출통제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18나노미터 이하 D램, 128단 이상 낸드플래시, 핀펫 로직칩 등 특정기술 수준의 반도체 생산장비는 중국 내 반입을 사실상 금지하는 조치다.

다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내 공장에 대해서는 1년간 유예조치를 통해 장비 수입의 예외를 허용한 상태다. 산업부는

1년의 유예 기간 이후 한국 반도체 기업이 다시 수출통제 조치를 적용받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와 관련한 불확실성을 해소해 달라고 미국 측에 요청했다.

문 실장은 그간 한미 양국이 다양한 양자·다자 차원 수출통제 논의에서 긴밀한 공조를 유지해온 점을 높게 평가하며 "앞으로도 수출통제 워킹그룹을 통해 양국간 제도에 대한 상호이해를 높이고 조화를 이룰 방안을 발전적으로 모색하자"고 말했다.

한미 양국은 수출통제 워킹그룹을 정례화하고 주요 이슈별로 구체적인 행동계획과 세부일정을 담은 작업계획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만남은 1차 워킹그룹 회의인 만큼 수출통제 조치에 대한 양국의 입장을 확인하고 공조 방안을 모색해 앞으로의 방향성과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김보근 기자



**바이어 초청 수출 상담** 광주광역시시는 11월 8일 홀리데이인 광주 호텔에서 열린 해외 바이어 단체 초청 수출상담회에서 110만 달러 수출 협약을 했다고 밝혔다. 3년 만에 대면 행사로 열린 상담회에는 화장품, 미용 제품, 식품, 생활용품, 의료기기, 헬스케어 분야의 지역 45개 업체가 참여했다. 업체들은 일본, 대만,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키르기스스탄 등 8개국에서 초청된 20개 사 바이어를 상대로 117건 수출 상담을 벌였다. 【사진=광주광역시 제공】

# 스마트시티 발걸로 ICT 수출 확대... 미 반도체 지원센터 설치

정부가 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에 스마트시티 협력센터를 구축해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의 해외 프로젝트 발걸을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 수출현장지원단은 11월 9일 판교 한국전자무역센터에서 ICT 기업의 수출 확대 지원을 위한 9차 간담회를 열고 이러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소프트웨어와 스마트시티, 교통시스템 등 ICT 분야 수출기업 6개사가 참석해 지식재산권 수출 관련 규제 개선과 해외 소프트웨어 인증 지원 등을 건의했다. 이에 산업부는 ICT 분야 수출 확대를 위해 스마트시티, 스마트팜 등 해외 프로젝트 발걸을 적극 지

원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KOTRA 등 수출지원기관을 통해 스마트시티 수요가 높은 태국 방콕,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튀르키예 이스탄불, 베트남 다낭,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등에 스마트시티 협력센터를 구축해 프로젝트 발걸과 현지 민관 네트워킹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중소기업이 단독으로 진출하기 어려운 대형 프로젝트는 관련 협회·기업 간 컨소시엄을 구성해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 또한 국내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이 반도체 공급망 재편에 대응할 수 있도록 미국 텍사스주에 '반도체 GP센터'를 설립해 현지 컨설팅과 마케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보근 기자

# ‘EU 탄소국경조정제도’가 뭔지 잘 몰라서...

## 경기 중소기업 69% “제대로 대응 못 해”

경기지역 중소기업 10곳 가운데 7곳은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CBAM은 EU로 수입되는 제품의 탄소 함유량에 EU ETS(탄소배출권거래제)와 연동된 탄소 가격을 부과해 징수하는 조치다. 수출기업

에는 일종의 추가 관세로 작용한다. 경기도와 경기지역FTA활용지원센터가 11월 3~9월 진행한 ‘환경·사회·지배구조(ESG)경영 및 탄소국경세 교육·설명회’ 참여 중소기업 98곳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4곳(4.1%)만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매우 잘 대응하고 있다’고 답했

다. ‘어느 정도 대응하고 있다’는 기업은 26곳(26.5%)이었다. 반면 ‘약간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38곳(38.8%), ‘전혀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30곳(30.6%) 등으로 응답 기업의 69.4%가 탄소국경조정제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었다.

대응하지 못하는 이유는 ‘전문교육 부족(27.4%)’, ‘내부 전문인력 부족(27.4%)’, ‘진단·컨설팅 등 비용 부담(23.5%)’을 들었다.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을 위한 희망 사업으로는 ‘교육 지원(26.7%)’, 환경인증취

득(ISO14001) 지원(19.8%), 환경인증취득(ISO50001) 지원(19.3%), 오염물질 배출량 산정 지원(18.3%), 전문인력 보급 지원(13.9%) 등을 꼽았다.

박근균 경기도 외교통상과장은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지만, 정보 접근이나 자금 부족 등의 이유로 탄소배출 감축방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수출기업이 변화된 통상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과 함께 환경인증 취득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채 기자

# 스마트그리드 유망시장은 베트남·인니·인도·필리핀

## 무협, ‘글로벌 스마트그리드 시장 현황과 우리 기업의 진출전략’ 보고서 발간

기존 전력망에 ICT기술을 접목하여 전력망을 실시간으로 관찰·통제해 전력망 운영 효율을 최적화하는 ‘스마트그리드’ 시스템 진출 유망 국가로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 필리핀 등 4개국 이 선정됐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11월 7일 ‘탄소 중립 시대, 글로벌 스마트그리드 시장 현황과 우리 기업의 진출전략’ 보고서를 발표하고 국가별 시장 잠재성, 한국의 수출 규모, 인당 전력소비량, 기업환경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리 스마트그리드 기업 진출 유망 국가로 이 4개국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스마트그리드 시장규모는 2021년 360억 달러에서 연평균 18.2%씩 성장하여 2030년에는 약 1600억 달러 규모에 달할 전망이다.

미국·캐나다·싱가포르·독일·일본 등의 경우 기업환경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저위험군으로 나타났으나, 이미 시장이 성숙하여 성장 잠재력이 작은 데다가 시장을 선점한 기업들이 있어 진출이 어려울 것으로 나타났다.

베트남·인도네시아·인도·필리핀 등 4개국의 경우, 시장의 성장성이 높은 가운데 기업환경도 우수해 진출 매력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스마트그리드 분야 중에서도 지능형 원격검침 인프라(AMI),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마이크로그리드 및 전력저장시스템(ESS) 시장이 유망할 것으로 내다봤다.

베트남의 경우 호치민 전력공사와 에너지 솔루션 기업인 트릴리언트는 2025년까지 하노이와 호치민에 약 100만 대의 AMI를 설치할 예정이며, 에너지 손실을 감소를 위한 지능형 송배전 시스템 구축이 확대될 예정이며, 인도네시아는 태양광이나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마이크로그리드 설치 수요가 소규모 섬 단위 위주로 늘

어날 전망이다. 인도는 2017년부터 올해까지 AMI, 신재생에너지, 마이크로그리드 등의 고도화 작업을 진행 중이며, 2027년까지 국가 전체에 AMI 보급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필리핀은 약 7000여 섬으로 구성된 국가로 자연재해로 인한 정전에 취약하여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ESS 도입 프로젝트를 시행 중이다.

김문선 한국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해외 스마트그리드 시장 공략을 위해서는 현지 프로젝트에 대한 이해도 제고, 현지 기업과의 파트너십 강화, 해외진출 경험이 있는 기업과의 컨소시엄 구성 등의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영채 기자

# “정부 지원 때 간접수출 실적도 인정 추진”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를 통한 간접수출 실적도 정부나 지자체단체의 지원제도에서 인정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11월 8일 직접 수출기업 위주인 정부와 지자체의 수출 지원 정책이 간접 수출기업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협의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옴부즈만은 이날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남 지역 중소기업 간담회인 ‘에스오에스 토크(S.O.S. Talk)’에서 수출 지원 대상을 중소기업 비중이 큰 간접 수출기업까지 확대해 달라는 건의에 공감을 표하며 이처럼 말했다. 그는 “협의 진행 결과

경상남도에서도 수출 지원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는 답을 얻었다”고 소개했다.

직접 수출기업 대다수는 대기업과 중견기업이고 간접 수출기업은 상당수가 중소기업이다. 간접수출 제도는 국내기업의 수출 물품에 필요한 원자재·부품을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로 공급한 경우 공급업체도 수출 실적으로 인정받는 것이다.

박 옴부즈만은 “수출기업이 중소기업에 수출증빙을 원활하게 발급해 주도록 동반성장위원회가 참여하는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구매확인서 발급 실적을 반영하는 방안도 협의 중”이라고 소개했다. 김보근 기자



두바이에서 K-소비재를 외치다 KOTRA가 11월 8일부터 이틀간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및 한국보건산업진흥원(KHID)과 ‘K-소비재 수출대전’을 개최했다. 사진은 개막 첫날 상담장 전경. 【사진=KOTRA 제공】

# 한국형 컨테이너 운임지수 개발... 11월 2주 2,892

11월 2주 한국형 컨테이너 운임지수(KCCI)가 2,892를 기록했다. 해양수산부는 부산항을 기준으로 하는 KCCI를 11월 7일 처음 발표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운임지수는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SCFI)다. 하지만 SCFI는 한일, 한·동남아 등 아시아 역내 항로의 운임 정보를 포함하지 못한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됐다. 이에 해수부는 한국해양진흥공사와 부산항에서 출발하는 컨테이너 운임을 기준으로 하는 신규 운임지수인 KCCI를 개발했다.

이 지수는 아시아, 북미와 유럽을 포함해 총 13개로 구성된 노선의 종합지수로 산정된다. 해수부 항만운영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선사들이 공표한 운임과 전문물류기업이 제공하는 운임정보를 활용한다. 해수부는 앞으로 매주 월요일 한국해양진흥공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KCCI를 발표한다.

윤현수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KCCI는

우리 해운기업과 수출입 기업이 실제 해상 운임 정보를 더 정확히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보근 기자

## 무역위원장에 이재민 교수



무역위원회 제15대 위원장에 이재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촉됐다. 임기는 2025년 11월까지 3년이다.

이 선임 위원장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국제상거래와 국제통상법 강의를 했다. 또한 유엔 국제상거래법위원회 워킹그룹, 세계무역기구(WTO) 보조금협정 전문가 위원회 등 국제기구 전문가 그룹뿐 아니라 서울국제법연구회, 한국국제경제법학회 등 국내 학회에서도 활동했다. 김보근 기자



CIS에 스마트팜 수출 지원 KOTRA가 11월 9일부터 12월 2일까지 약 3주간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CIS 주요국으로의 스마트팜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2022 CIS 스마트팜 워크’를 진행 중이다. 사진은 전시회에서 국내기업과 바이어가 상담하는 모습. 【사진=KOTRA 제공】

# 해남 유기농 쌀 미국에 첫 수출... 내년까지 1200t

## aT, 수출상담·인증취득 등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는 11월 8일 전남 해남에서 한국산 유기농 쌀 500t 미국 수출계약을 기념하며 초도수출 선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초도수출 물량은 땅끝항토친환경영농조합법인(대표 윤영식)이 생산한 3만 달러 상당의 유기농 백미 20t으로,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소재한 프리미엄 유기농 즉석밥 가공공장으로 수출된다.

이번 계약물량 500t은 지난 2021년 대미 쌀 수출량의 97%에 달하는 대형계약으로, 그 배경에는 aT가 거래알선부터 수출

상담, 바이어 초청, 해외인증 취득까지 밀착지원이 있었다. 곧이어 내년 2월에는 후속 물량 700t 계약도 예정돼 있어 2년간 총 1200t의 한국산 유기농 쌀이 미국에 수출될 전망이다.

정부와 aT는 쌀값 하락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농가 소득을 안정시키고자 국산 쌀 수출지원을 강화하고 해외판로개척 등 다양한 지원을 펼치고 있다. 특히 지난 8월 쌀 수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고, 쌀 수출협의회 및 수출업체 등과 3회에 걸친 긴급 간담회를 실시해 현장의 의견을 토대로 물류비 지원을

강화하고 싱가포르 국제식품박람회 쌀 홍보관 운영 등 바이어 발굴과 해외 판촉 등 다양한 마케팅을 추진했다.

이러한 쌀 수출 활성화 대책으로 올해 9월 말까지 쌀 수출 물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8.4% 증가한 1800t을 기록했으며, 수출액 기준으로는 21.3% 증가한 470만 달러를 기록했다. 특히, 주요 수출국인 미국과 호주 뿐 아니라 몽골 94t(전년 대비 433.6%), 캐나다 108t(전년 대비 182.6%) 등 신시장 수

출이 대폭 증가했다. 이는 몽골, 캐나다를 비롯한 신시장국가를 대상으로 물류비 추가 지원과 긴급 판촉전을 추진한 결과다.

김춘진 aT 사장은 "쌀 소비감소와 산지 재고 과잉 등 어려운 여건 속에도 민·관이 협업해 쌀의 해외 판로를 확대하게 돼 매우 뜻 깊다"라며, "쌀은 식량안보와도 직결되는 핵심 품목인 만큼, 앞으로도 국내 수급 안정과 농가 소득 제고를 위해 쌀 수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채 기자

## aT·전북수출협회, 전북수출 확대 모색 간담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는 11월 7일 완도에서 한국전북수출협회, 한국전북산업연합회, 완도군 및 주요 전북 수출업체 10개사와 함께 '전북 수출확대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aT는 간담회에서 전북 생산·수출 동향을 공유하고 업계 애로사항과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최근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베트남 등 신시장 개척과 전북가공품 개발 등 제품 다변화, 수출 경쟁력 향상을 위한 활컨테이너 지원을 비롯해 기후변화에 대응한 품종 개발 및 고부가가치 상품 개발 필요성 등을 논의했다. 이어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정우혁 팀장의 '전북수출을 위한 가공식품 개발' 주제 발표가 이어지며 수출업체 등 참석자들의 심도 있는 토론도 진행됐다.

구자성 수산사업단장은 "전북 소비는 그동안 한국과 중국, 일본 외에는 소비가 거의 없었지만, 최근 베트남 등 신규소비처가 창출돼 고무적"이라며, "앞으로 전북 수출확대를 위해 지속적인 신규시장 개척은 물론, 활전북 위주에서 냉동품·HMR제품 등 다양한 가공품을 개발해 해외 수요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북수출은 코로나19 완화와 외식수요 증가, 건강한 식재료 인지도 확대로 올해 9월 말 기준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2.4% 증가한 4657만 달러를 기록했다. 수출시장은 일본이 3559만 달러로 41.4% 증가했으며, 베트남은 호텔과 고급 레스토랑을 중심으로 한국산 전북수요 증가로 144.4% 증가한 569만 달러 수출을 기록했다. 김영채 기자



농림축산식품부, aT, 전라남도, 해남군, 땅끝항토친환경 관계자들이 대미 쌀 초도수출 선적식 기념사진 촬영에 응하고 있다. 【사진=aT 제공】

# 빅바이어들 주문 줄어... 인니 섬유업계, 불황의 늪

## 공장 가동률 떨어지고 재고 쌓여 대규모 감원... 한국 봉제업체 수주량도 30% 격감

인도네시아의 주요 일자리 창출 시장 중 한 곳인 섬유 봉제 업계가 전 세계 소비 둔화의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으며 대규모 감원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고 일간 <자카르타 포스트>가 최근 보도했다. 서자바 섬유기업가협회(PPTPJB)에 따르면 올해 들어 10월까지 18개 업체가 문을 닫았으며 124개 섬유업체에서 최소 6만4000명의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었다.

인도네시아 섬유업계의 감원 한파는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안메이 PPTPJB 회장은 "계약 연장이 안 돼 일자리를 잃는 노동자 수가 계속 증가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인도네시아의 섬유봉제 산업은 세계 10위

권으로 인도네시아 노동시장을 이끄는 주요 산업 중 하나다. 인도네시아 통계청(BPS)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섬유 봉제 업계에서 일하는 종사자 수는 110만 명이다. 이는 인도네시아 전체 중대형 산업 고용의 약 20%에 해당한다. 또 인도네시아 주요 제조업 부문 GDP의 7%를 차지할 만큼 경제적 비중도 크다.

하지만 전 세계 경기 둔화의 영향으로 소비가 줄면서 해외 바이어들의 주문도 크게 감소해 인도네시아 섬유 봉제 업계가 큰 타격을 받고 있다. PPTPJB는 나이키와 빅토리아 시크릿 등 세계적인 유명 의류 브랜드가 주문을 줄이면서 재고는 쌓이고 주 7일 작업하던 공장들이 주 5일로 바뀌는 등 공장 가

동률이 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섬유협회(API)의 제미 카르티와 회장도 해외 바이어들이 주문을 취소하지는 않지만 2개월 이상 선적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며 주문이 3분기에만 전년 동기 대비 30% 넘게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섬유업계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원자재를 공급하는 합성 섬유생산회사들 역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인도네시아 합성섬유생산자협회(APSIFY)는 수천 명의 노동자들이 무급 휴가를 떠났으며 대부분의 공장 가동률이 50% 미만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또 재고가 쌓이면서 창고 임대비용만 늘어나는 상황이다.

문제는 이런 어려움이 내년에는 더 심화할

것이란 점이다. 경기 둔화가 내년에 더욱 심화하면 그만큼 소비가 감소해 주문량도 줄어들 전망이다. 여기에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1%대에 그치고 고물가가 이어지면서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 달라고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지금처럼 주문량은 줄어드는데 임금은 대폭 올라가면 노동집약 산업인 섬유 봉제 업체들의 부담은 배가될 수밖에 없다. 인도네시아의 내년도 최저임금은 이달 중 결정될 예정이다.

이러한 어려움은 인도네시아에 진출해 있는 많은 한국 섬유 봉제 업체들도 겪고 있다. 안창섭 한국봉제협회 회장은 "미국과 유럽으로 주로 수출하는 니트나 수영복 업체들의 어려움이 특히 크다"라며 "주문 물량이 평균 30% 정도 줄어들면서 공장 가동률도 떨어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자카르타=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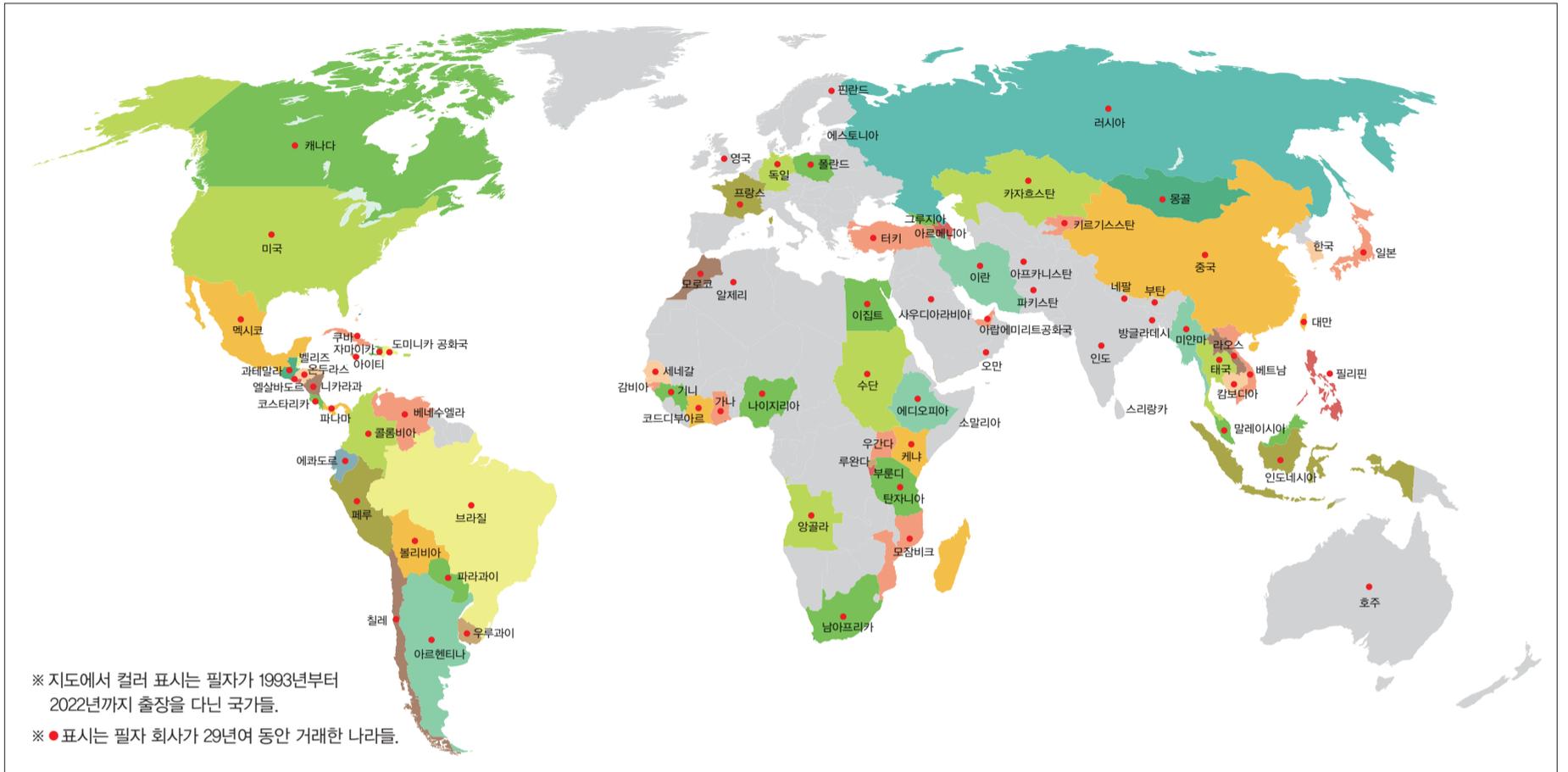


인도네시아 시장 개척 한국무역협회와 코엑스는 11월 10일부터 사흘간 인도네시아 JCC 전시장에서 '2022 자카르타 국제프리미엄소비재전(JIPREMIUM)'에 참가해 국내 중소기업들의 현지 소비재 시장 개척을 도왔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3년 만에 오프라인으로 정상 개최된 이번 JIPREMIUM에는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175개 국내 유명 중소기업이 참가해 뷰티, 푸드, 리빙, 유아용품 등 K-라이프스타일 제품을 선보였다. 협회와 코엑스는 170여 오프라인 매장을 보유한 '슈퍼 인도(Super Indo)' 등 현지 유명 빅바이어 150여 개사와 600건 이상의 현장 수출 상담을 지원했다. 또 7일부터 일주일간 자카르타 롯데쇼핑에비뉴 1층에 'KITA Trade Show 2022' 특별홍보관을 조성해 인니 현지 소비자 대상으로 국내 67개사 제품 쇼케이스와 판촉 행사를 여는 등 마케팅 활동을 전개했다. 전시장에서 현지 바이어들과 참가자들이 제품을 둘러보고 있다(사진 위). 인도네시아 현지 바이어들이 국내 뷰티 브랜드 담당자와 수출 상담을 진행 중이다(사진 아래). 【사진=코엑스 제공】

# 지구 60바퀴, 발로 댄 무역 이야기

정병도 웰마크 사장의 글로벌 비즈니스 비망록 (38)

## [에필로그] 아직 가보지 못한 시장을 찾아서



■ 아시아에서 거래하지 못한 나라 : 동티모르, 부르나이, 뉴질랜드, 스리랑카 팔라우, 부탄. ■ 중앙아시아에서 거래하지 못한 나라 :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벨라루스. ■ 유럽에서 거래하지 못한 나라 : 우크라이나, 조지아, 벨라루스, 에스토니아, 그리스, 벨라루스, 포르투갈. ■ 아프리카에서 거래하지 못한 나라 : 짐바브웨, 콩고, 나미비아, 보츠와나,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마다카스카르, 차드, 리비아, 말리, 모리타니, 알제리, 가봉 등. ■ 중남미에서 거래하지 못한 나라 : 쿠바, 수리남, 가이아나, 엘살바도르, 벨리즈.

<한국무역신문>에 글을 연재하기 시작한 때가 2022년 3월 첫째 주였는데 벌써 11월이 되었다. 독자들은 올해 비즈니스에서 만족한 결과를 얻었는지 궁금하다. 수출에 종사하건, 그렇지 않건 모든 분들에게 장기간의 팬데믹으로 인한 어려움에 대해 위로를 드린다.

특히 수출에 전념하는 모든 기업에 분투가 있었으리라 생각이 든다. 환율이 높아 수출에는 좋지만, 역으로 원자재 등 수입 구매 면의 어려움으로 사업을 하기가 점차 힘든 상황이다. 모두가 지혜를 모으고 에너지를 발현해 앞으로 나아가는 길 이외에는 답이 없을 듯하다. 부족한 필자의 글이 모든 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부족한 연재임에도 묵묵히 오랜 기간 애독한 모든 독자들에게 고맙고 또 고맙다.

누구나 그렇지만 인생이란 쉽지 않다. 그러한 연유로 필자가 항상 염두에 두고 행동하는 것은 항상 반대로 가보는 것이다. 남들과 반대로 행한 인생이 더더욱 가치가 있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안 되면 다른 길로 우회하여 나아가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필자에게도 쉬운 선택이 없었던 것 같다. 좋은 직장 그만두고 중소기업을 선택했을 때, 편한 부서를 포기하고 어려운 해외영업을 선택했을 때, 보장된 봉급을 받으며 사는 것을 포기하고 창업했을 때, 쉬운 시장을 버리고 아프리카와 중남미시장으로 방향을 잡았을 때. 하지만 돌이켜 보면 그랬던 덕분에 현재의 필자가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장자(莊子)는 “산의 나무는 스스로 잘 자랐기에 베이고, 등잔불은 불이 밝기에 스스로를 태우게 된다. 계수나무는 열매가 먹을 만하기에 가지가 꺾이고, 울나무는 울칠에 쓸

만하기에 껍질이 벗겨진다. 사람들은 모두 ‘쓸모없음’의 쓸모는 알지만 ‘쓸모없음’의 쓰임은 알지 못하는구나!”라고 했다. 마치 잡초라는 개념을 버리면 온 세상이 꽃밭이듯이 말이다. 우리가 하는 무역이 국가의 부흥과 미래가 될 수 있다는 점에 긍지를 가지고 모두 노력했으면 한다.

**함정투성이 세상에 끝없이 도전하라**  
 군주론을 쓴 마키아벨리는 세상은 여기저기 함정이 도사리고 있으므로 군주는 여우와 사자와 같음을 견뎌야 한다고 하였다. 사자는 함정에 빠지기 쉽고 여우는 늑대를 물리칠 수 없으므로, 함정을 알아차리기 위해서는 여우가 되어야 하고, 늑대를 물리치기 위해서는 사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기업의 리더도 사자와 여우가 되어야 할 것이다. 움츠린 시장에서는 사자와 같이 굳건한 정신을 가지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며, 경쟁이 치열한 시장에서는 여우와 같은 경영전략도 필요할 것이다. 기업이 살아남는 것은 치열한 노력 이외에는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명필은 붓을 가리지 않는다(能書不擇筆)’는 중국의 고사성어가 있다. 코로나로 인해 세계시장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는 한편으로 어려움에 직면해 있지만, 기업은 코로나19, 외환 리스크, 인플레이션 등 어려움을 헤쳐 나가야 한다. 명필가들은 붓이나 먹을 따지지 않는다고 하듯이, 기업도 주변의 나쁜 환경을 가리지 않아야 할 것이다. 수출은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되며 국가를 살릴 수 있는 가장 큰 자양분이다. 내가 하는 일이 내 가족과 사회를 위한다면 가치 있는 길이 아니겠는가.

**아직 가보지 못한 시장을 찾아서**  
 세계지도를 보며 필자가 다닌 곳에 표시를 하니(그래픽 참조)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든다. 특히 중미(CENTRAL AMERICA)의 조그마한 나라들이 기억에 남는다. 근간에 영화가 개봉한 ‘수리남’은 가보지 못하였지만, 과테말라,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엘살바도르, 코스타리카, 파나마와 인근에 위치한 쿠바까지 세세히 다니며 거래처를 찾고 업무를 한 기억이 즐겁다. 많은 사람들이 조그마한 나라들에 관심이 없지만, 역으로 그곳은 독과점 시장을 가질 수 있는 몇 안 되는 시장이기도 했다.

서아프리카 지역도 추억이 많다. 가나, 세네갈, 코트디부아르 등 작은 나라들에 여러 차례 수출하기 위해 많은 에너지를 쏟은 것도 큰 기억이다. 아시아에도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등이 기억에 남는다.

아직도 가야 할 시장들이 있다. 성을 쌓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성을 넘는 사람이 되고 싶다. 만족이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일부 남은 시장에 가려고 한다. 북아프리카, 일부 유럽, 인도, 호주 등이다. 거래는 하고 있지만, 출장을 가보지 못한 곳이라 궁금한 시장이기도 하다.

홍콩으로 처음 수출한 지 29년이 흘렀다. 인터넷으로 인해 세계시장은 매우 변모했으며 전자상거래로 인해 바이어를 만났다가 매우 수월해졌다. 그러나 가능한 한 직접 바이어를 찾고 다닌다면 더더욱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논어에 ‘용자불혹(勇者不懼)’이라는 말이 있다. ‘용기가 있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예상되는 불경기 파고를 넘고 시장을 개척하려면 많은 용기가 필요할 것이다. 두려워하면 다 놓칠 것이다. 과감한도

전과 용기만이 험난한 고비를 넘어 좋은 길로 인도되어 질 것이다.

중용(中庸)에 ‘지성무식(至誠無息)’이라는 말이 있다. 지극한 정성은 쉬지 않는다. 쉬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걷는 사람이야말로 최후의 승자로 남을 수 있다는 어구다. 2022년 오늘에 필요한 말인 것 같다. 누구를 탓할 것도 없고 나무랄 것도 없다. 이미 예견된 것처럼 글로벌 사회에서는 끊임없이 다양한 변수가 일어날 것이고 빠른 속도로 세상은 변해갈 것이다.

어떤 기업이든 시대와 경쟁력에 뒤처지면 끝이다. 바로 문을 닫아야 한다. 계속하려면 창조적인 전략과 피나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의지를 넘어서는 경쟁력은 없다고 한다. 강한 의지를 가지면 어떤 파고도 넘을 것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성공을 경계하고 끊임없이 돌아보았으면 한다. 리더는 이미 준비된 길을 가는 것보다 새로운 길을 만들어 나아가는 것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모든 분들에 성공과 건강을 빈다. <연재 끝>



정병도 사장은 1999년 4월 인조피혁제조 및 바닥재 수출회사인 웰마크(주)를 창업한 이후 경쟁기업들이 주목하지 않던 아프리카, 중남미 시장을 성공적으로 개척해 주목을 받았다. 그 과정에서 지구 60바퀴를 돌 만큼의 비행 마일리지들을 쌓으며 ‘발로 뛰는’ 해외마케팅을 실천했다. 강원도 화천에서 태어나 경기대학교에서 독어독문학을 공부했고 고려대학교에서 국제경영석사 과정을, 청주대학교에서 국제통상 박사과정에서 이문화 협상(CROSS CULTURE NEGOTIATION)을 공부했다. 저서로 ‘마지막 시장-아프리카&중남미’ 등이 있다.

# 상하이 국제수입박람회 관전하기



중국 사업을 위해서는 중국의 국가급 수출입 3대 전시회를 알아야 한다. 베이징 중국국제서비스무역교역회(CIFTIS), 상하이 중국국제수입박람회(CIIE), 광저우 중국국제수출입상품교역회(일명 '캔톤페어')이다. 중앙 정부가 직접 챙기는 중국 대외무역의 창구 역할을 하는 매우 중요한 박람회이기 때문이다.

올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200개 이상의 전시회가 연기 혹은 취소되었지만, 대외개방을 상징하는 3대 전시회는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개최되었다. 그만큼 3대 대외개방 전시 플랫폼이 가지는 의미가 남다르다.

중국 대외무역의 바로미터로 알려진 캔톤페어는 1957년부터 시작되어 가장 역사가 오래된, '메이드 인 차이나'의 성장에 결정적인 공헌을 한 박람회다. 매년 봄, 가을 두 차례에 걸쳐 광저우에서 개최된다.

지난 9월 개최된 중국국제서비스무역교역회는 삼엄한 미중 충돌 속에서도 글로벌 포춘 500대 기업 중 400개 이상의 글로벌 기업이 참석해 총 1339건의 프로젝트가 체결되는 등 성장리에 막을 내렸다. 올해 10회째를 맞이한 서비스무역교역회는 시진핑 주석의 지난 10년 집권과 함께 성장한 대표적 서비스 교역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했다.

한편, 상하이 중국국제수입박람회는 세계 최초로 수입을 주제로 한 국가급 행사로 시 주석이 서비스무역교역회와 함께 직접 챙기는 박람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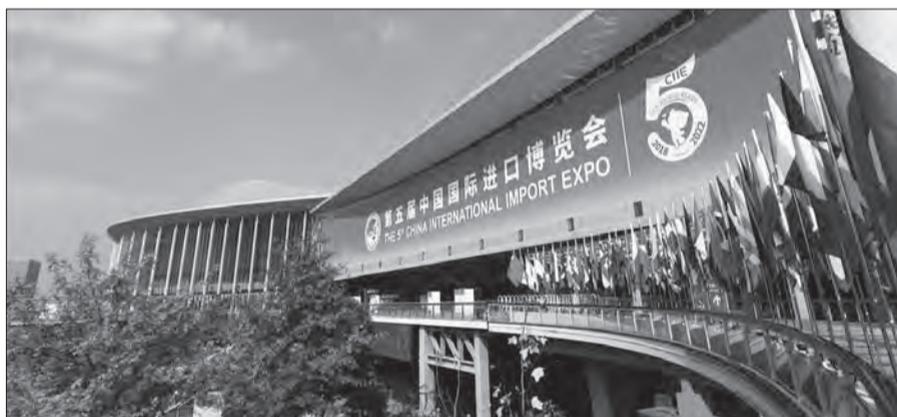
세간의 주목을 받은 공산당 20차 전국대표대회가 끝나자마자 제5회 중국국제수입박람회가 개최됐다. 특히 올해 국제수입박람회는 테슬라가 참가하면서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테슬라는 이 전시회의 신기술 및 신제품 전시회 세션을 통해 전기차뿐만 아니라 휴머노이드 인간형 로봇인 테슬라봇 프로토타입을 공개했다.

테슬라봇은 2021년 8월 처음 대중에 소개되었고, 2022년 9월 미국 AI Day에서 시제품이 처음 공개되었다. 테슬라봇은 영화 트랜스포머에 등장하는 로봇 '옵티머스 프라임'에서 이름을 따서 '옵티머스'라고도 부른다. 테슬라가 본고장 미국에 이어 상하이 국제수입박람회에 참가해 테슬라봇 시제품을 공개하는 이유는 엄청난 중국 내수시장과 함께 박람회가 갖는 정치적, 경제적 중요성을 알기 때문이다.

매년 11월 초 상하이에서 개최되는 국제수입박람회는 중국이 수입을 확대해 글로벌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목적으로 시작했다. 2017년 5월 일대일로 국제협력 고위급포럼에서 시 주석이 처음 언급한 이후 본격 추진된, 수입을 주제로 하는 최초의 국가급 박람회이다. 국제수입박람회는 미중 무역 전쟁이 본격화



11월 6일 중국 상하이 국가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회 중국국제수입박람회(CIIE) 자동차 전시장에서 관람객들이 현대모비스 부스의 전기완성 새시 플랫폼 모듈을 보고 있다. 이 박람회는 11월 5일부터 10일까지 중국의 경제 중심지인 상하이에서 열렸다. 【사진=신화/뉴시스】



제5회 중국국제수입박람회(CIIE) 개막을 이틀 앞둔 11월 2일 주 행사장인 국가전시컨벤션센터(상하이)의 서쪽 출입구에 전시회를 알리는 대형 간판이 붙어 있다. 【사진=신화/뉴시스】

된 2018년부터 시작해 5년의 짧은 역사이지만 120여 개 국가의 5000개가 넘는 수출기업들이 참석하는 국제적인 행사로 발달해왔다.

상하이 국제수입박람회는 출범부터 남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 출범의 배경과 목적은 크게 4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일대일로 연선 국가들의 제품 수입 확대를 통해 일대일로의 범위와 영향력을 더욱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2018년 1월부터 2022년 5회까지 시 주석의 개막식 연설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용어가 바로 '일대일로의 공동건설'이다. 미중 간 충돌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중국과 일대일로의 연선국가 및 유럽 국가 간의 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국제수입박람회가 중요한 플랫폼으로 활용되고 있다. 참가 국가 및 기업현황을 보면 중국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유럽, 일본 등 선진국 기업의 참여가 확대되고 있고, 일대일로 연선국가 비중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둘째, 미국 우선주의에 대응한 다자주의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목적이다. 2018년 출범 당시에는 격화되는 미중 무역 전쟁에 맞추어 무역 불균형에 대한 압박을 회피하려는 의도였지만, 지금은 미국 우선주의에 대항한 다자협력 및 다자주의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강조하는 플랫폼으로 성장했다. 2021년 4회 박람회 시 주석 개막식 기조 연설에서 다자주의 견지, 기후변화 대응, 세

계 공동의 이익수호 등을 강조하며 미국의 대중국 견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셋째, 제3국 혹은 개도국 제품의 수입확대를 통해 중국 경제의 영향력을 더욱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다. 국제수입박람회를 통해 체결한 거래금액 규모를 살펴보면 1회 578억 달러 → 2회 711억 달러 → 3회 726억 달러 → 4회 707억 달러로 지난 4회 누계 거래금액이 약 2722억 달러에 이른다. 엄격한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해 2021년 4회 거래규모가 조금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많은 외국 기업들이 참여하는 중국 최대 수입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했다. 2001년 WTO 가입 이후 중국은 지난 20년 동안 세계 최대의 경제 성장 기여자인 동시에 11년 연속 세계에서 두 번째 수입국으로서 성장했다. 중국은 향후 장기간 지속될 미중 간 신냉전 구도 속에서 개도국 중심의 국가들을 전략적 우군으로 확보하려 하고 있다.

넷째, 글로벌 다국적기업의 신기술 및 신제품 공개의 전시 플랫폼으로서 막대한 중국 내수시장의 중요성을 알리려는 목적이다.

이와 더불어 상하이 국제수입박람회에는 또 하나의 핵심 관전 포인트가 있다. 바로 향후 중국 대외무역 및 산업의 대외개방 방향성이다. 시 주석이 지난 5년간 개막식 기조 연설에서 일대일로 공동구축과 함께 가장

많이 언급한 키워드가 바로 '대외개방'이다.

1회 개막식 기조연설에서 대외개방의 신기지 조성을 강조하며, 하이난 자유무역항 건설을 시작했고, 그로 인해 하이난성은 면세, 의료 특구 등 다양한 특혜를 받으며 성장하고 있다. 2회 때는 시장개방 확대를 강조하며 수입무역 촉진을 위한 시범구 건설 및 관세인하 방향성을 언급했고, 3회에서는 서비스무역 네거티브리스트를 발표하고, 디지털 경제, 인터넷 분야의 대외개방 확대를 위한 무역 및 투자 자유화를 강조했다. 4회에서는 외국인투자 네거티브 리스트 축소와 함께 RCEP 및 디지털 동반자협정(DEPA) 적극 가입을 통해 수준 높은 개방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올해 5회에서도 대외개방과 무역자유화를 핵심 아젠다로 제시하고 있다.

미국의 제재에 맞서 중국은 더욱 다양한 우대혜택과 대외개방을 통해 외국기업 유치를 확대하고, 중국식 공급망을 구축하고자 한다. 지난 10월 25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및 상무부, 공신부 등 6개 부처 공동으로 '제조업 중심의 외자 안정적 확대 및 질적 향상을 위한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향후 중국 대외무역 및 외자유치 정책의 변화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한다. 미중 양국의 충돌 속에서 일어나는 제재와 시장개방을 '위기가 아닌 기회'로 활용하는 지혜와 혜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박승찬

중국 칭태대에서 박사를 취득하고, 대한민국 주중국대사관 경제통상관/중소벤처기업지원센터 소장을 5년간 역임하며, 3,000여 개가 넘는 기업을 지원했다. 미국 듀크대학 교환교수를 역임했으며, 현재 사단법인 중국경영연구소 소장과 용인대학교 중국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 인도 거래의 첫걸음, 인도상인 족보를 알아보자

● 세계 3대 상인집단 : 유대상인, 화상, 인도상인 = 세계 3대 상인집단으로 통상 유대상인, 화상 그리고 인도 상인이 회자된다. 인간이 모여 사는 곳에 상업이 있게 마련이고, 이 업에 종사하는 수많은 상인집단이 있게 마련이다.

‘3대 상인’이라는 것이 노벨상처럼 공식적인 지정 주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기준도 각자 달라 논란을 불러올 주제이지만, 상식의 눈으로 본다면,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한 고유의 상거래 문화와 단결력으로 인류 경제 발전사에 끼친 영향력 정도”가 그 선정 기준이 아닐까 한다.

이런 면에서 유대상인 그룹은 인류 경제사와 현금의 영향력 면에서 세계 제1의 상인집단임에는 재론의 여지가 없는 것 같다. 기원전 디아스포라(Diaspora) 시절의 중동부터, 중세의 유럽, 그리고 현재의 미국에 이르기까지 당대의 최강제국의 중심에는 늘 유대상인이 있었다.

중국의 황하와 인도의 갠지스강 유역은 사시사철 비슷한 유량과 강이 신고와 뿌려주는 히말라야의 막대한 토사로 단위면적당 농업 생산성이 지구상의 여타 비옥한 지역보다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알려져 왔다.

중국 황하지역은 늘 물산이 넘치고 인구가 몰리고, 이곳을 중심으로 통일 왕조가 서고 켜지며, 재화가 몰리고, 또 퍼져 나갔다. 화상은 이 황하유역의 월등한 생산력과 조직화된 상관행이 중국 내 여타지역, 북방 유목민족, 동남아 지역으로 확산되고 교류되는 과정에서 형성된 상인집단으로 3000년 이상 중국 대륙과 북방, 남방, 동아시아 상업계를 지배하였다.

중국과 달리 인도아대륙은 북쪽의 히말라야 병풍과 8000km에 달하는 해안선으로 막혀 있고, 동서 양쪽이 깊은 밀림과 협곡으로 둘러싸여 사실상 그 자체가 또 하나의 완결된 세계였다. 대한민국 면적의 50배에 달하는 이 지역에 통일왕조는 없었고, 셀 수 없는 수많은 국가와 민족, 언어, 종교가 뒤섞였다. 인상(印商), 즉 인도상인은 이러한 인도의 지리, 역사적 여건을 배경으로 종교적, 인종적, 카스트적 특성이 결합돼 탄생한 인도 문화의 한 단면이다. 인도 인구 전체의 약 3%인 4000만 명 정도가 상인계급 바니아(Baniya)로, 4% 인구의 브라만과 함께 인도의 경제, 정치, 문화를 주도하고 있다.

● 인도상인의 계보 : 마르와리, 구자라티, 파르시 3대 상인집단 = 인상은 인도 전통의 카스트 시스템과 결부되어 있다. 현대에 접어들어 전통사회가 붕괴하면서 조금 희석되고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인도 상인집단은 조상 대대로 3000년 이상 상업 한 분야에만 종사해 왔다. 우리나라의 ‘사농공상(士農工商)’ 위계질서와 달리 ‘사상농공(士商農工)’인 인도 카스트 4계급 중 상인계급은 바니아로 불리며 신분상 지위도 높았고, 경제·사회적 영향력도 매우 컸다.

화상에 객가(客家), 절상(浙商) 등 소그룹이 있듯이 인상도 지역, 종교에 따라 나뉜다.

인도상인 집단 중에서도 역사적 연원과 상문화, 영향력, 상인 수, 평판 면에서 단연 으뜸은 마르와리 상인이다. 인도 북서쪽에 그곳에서 명멸한 수많은 힌두 왕국이 남겨 놓은 화려한 유적으로 관광객이 몰리는 라자스탄

## 현장에서 본 ‘G2’ 인도

김문영의 인도경제, 인도상인 이야기 (24)



(Rajasthan)주가 있다. 타르 사막을 낀 건조한 지역이라 물산이 부족해 사막 교역과 여러 힌두 왕조를 낀 금융업에 종사해 왔다.

라자스탄 내에서도 파키스탄 국경과 가까운 마르와(Marwa) 지역 출신, 넓히면 라자스탄 지역에서 태동한 상인집단을 마르와리(Marwari) 상인이라 칭한다. 주요 교역로에 무료 숙식과 정보교류 장소로 ‘바사(Vasa)’를 운영했고, 공동체 사업자금을 지원하거나 도제로 삼아 세력을 키워왔다. 빌린 돈은 평생을 통해서라도 갚아야 했고, 못 갚으면 제명하는 전통이 유지돼 왔다.

이들은 장사를 위해 타지로 떠나면서 남아 있는 가족을 일족에게 위탁하고, 자식들을 일족 기업에 위탁하는 과정을 통해 공동

지역이다. 고대부터 인도아대륙의 향신료, 직물이 인근 페르시아, 중동, 아프리카, 유럽으로 연결되는 핵심통로 역할을 해 왔다. 마르와리에는 못 미치지만 근검이 몸에 배었고 확신이 서면 ‘몰방’할 정도의 공격적 투자를 하는 ‘보부상 DNA’로 유명하다.

인도 제1 기업집단 릴라이언스(Reliance), 인도의 인프라 산업을 선도하고 세계 3위 부자로 등극한 아다니(Adani), 세계 다이나몬드의 80% 이상을 가공하고 있는 수랏(Surat) 지역을 대변하는 돌라키아(Dholakia) 가문, 미국 모텔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파텔(Patel) 가문 등이 대표적인 구자라티다. 마르와리가 인도 전역에 분포되어 있다면, 구자라티는 서부의 몸바이 및



전통적인 구자라티 상인(인도 남구자라트 상공회의소장 및 구자라티 상인). 필자 직접 촬영.

체 경영의 전통을 지켜왔다. 복식 부기 개념의 파르타(Parta) 회계시스템과 일종의 환어음으로 현금 이동 없이 원거리 대금결제 및 대출을 가능케 한 훈디(Hundi) 시스템을 선도적으로 도입했다.

16세기 무굴(Mughal) 제국과 18세기 대영제국, 1947년 인도의 독립과 1991년 인도경제의 개방화 등 정세 격변기에 이렇게 응축한 에너지와 연대, 정보 네트워크를 배경으로 라자스탄을 넘어 콜카타, 델리, 뭄바이, 첸나이 등 인도 전역은 물론 영국, 중동, 아프리카로 퍼져 나갔다. 들어가면 안 나오는 것으로는 대적할 자가 없다는 근검과 일족간 유별난 연대로 유명하다. 세계 최대 철강 기업을 일군 미탈(Mittal) 가문, 인도 전통산업을 대표하는 아디티아(Aditiya) 가문, 본가로 인정받고 있는 아가르왈(Agarwal) 가문, 인도 전자상거래 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반살(Bansal) 가문 등이 대표적이다.

다음은 인도 북서부 해안지역에 위치한 구자라트 지역을 기반으로 한 구자라티(Gujarati)다. 북쪽으로는 타르 사막, 서쪽으로는 2000Km의 들락날락 해안선을 배경으로 사막의 대상교역과 해양교역이 교차하는

구자라트, 북미 쪽에 집중 분포되어 있다.

세 번째는 우리나라의 모 대기업 회장이 “인도기업 중 이곳 하나 빼고는 안 믿는다”고 한 그 인도기업 ‘타타(Tata)’가 대표하고 있는 상인집단 파르시(Parsi)다. 파르시는 바른 생각, 바른 말, 바른 행동을 생활신조로 불을 숭상하는 세계 최초의 일신교, 조로아스터교를 신봉하는 집단이다. 이란 본토 이슬람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종교적 박해를 피해 8~9세기 무렵 이웃 인도 해안가 구자라트 지역으로 이동 후 타고난 근면성과 정직, 동물적 감각으로 인도 산업화를 선도한 집단이다. 인구가 6만에 불과하지만 인도 핵폭탄의 아버지 호미 바바(Homi Bhabha), 세계적인 지휘자 주빈 메타(Zubin Metha)를 배출하였고, 한 집 넘어 박사라 할 정도의 세계 초일류 소수 민족 및 종교 공동체다. 인도 근대화과 최첨단화를 선도해 온 인도 제1 기업집단이자 존경받는 기업의 대명사 타타, 인도 생필품 제1 기업군 고드레지(Godrej), 세계 제1의 백신 제조기업 SII(Serum Institute of India)가 대표적인 파르시계 기업이다. 이웃 이란 및 독일계와 같은 아리아계로 파란 눈과 서구적인 풍모

로 마치 유럽계 상인을 대하는 착각에 빠질 때가 많다.

● G3 인도 상인, 소상인 그룹들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다가서야 = 파르시가 아리아계라는 민족적 단일성과 조로아스터교라는 종교적 특성이 교차한다면, 인도 4대 상인집단인 자인(Jain) 상인집단은 자인교라는 인도 전통 종교를 신봉하는 상인집단이다.

불교와 비슷한 시기인 기원전 600년경 인도에서 태동한 자이나교의 윤회, 불살생(Amimsa) 교리 상 허용되는 교육과 상업 중 후자에 집중한 상인집단으로, 주로 인도 북서부 및 수도 델리에 집중 분포되어 있다. 파르시와 함께 신뢰의 상인집단으로 유명하다. 타고난 근면과 DNA에 천착된 사업 감각으로 인도 북서부 중견, 대기업의 3분의 1이 자인이라고 알려진다. 인도 최대의 제약 기업을 일군 Sun Pharma의 Dilip Sanghvi, 당대에 전력·항만 등 인도 인프라개발을 선도하고 있는 아다니 그룹(Adani Group)의 세계 3위 부자 가우탐 아다니(Gautam Adani)가 자인 출신 기업가다. 인구 500만으로 인도 세금의 3분의 1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상(商)’은 이미 생산된 물품의 이동 및 판매와 관련된 경제활동이다. 따라서 물품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제조·생산하는가의 ‘공(工)’과 구별된다. 상과 상업, 상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소싱 및 판매와 관련된 정보력과 네트워크 능력, 거래비용 감소를 위한 상거래, 금융시스템의 개발이다. 제조업이 발달한 독일,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제, 상업 마인드가 전통적인 상인계급과 다른 이유다.

인도 상인은 일반적으로 장기적인 거래 안정정보보다 단기적인 이익을 좇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도 상인에 대한 평가가 그리 긍정적이지 않은 이유다. 필자도 이에 일정 부분 동의하고 북부 지역에서 이와 관련된 많은 경험도 해 보았다. 그러나 상인, 상인집단의 상관행과 문화란 것이 3000년 넘는 오랜 기간, 질곡의 카스트 제도하에서 날이 새면 바뀌는 통치 세력과 외침 과정에서 형성된 인도 상인집단의 종족 보존과 번식 본능의 결과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곤 한다.

다만, 그 많은 인도상인 소집단 중, 우리나라 개성상인을 넘어서는 신용과 상관행으로 유명한 상인집단도 있고, 인도에서도 일반적으로 평판이 안 좋은 북부 지역의 상관행 평판을 인도 서부, 남부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인도는 너무 크고 또 다양하다. 인도는 이미 영국의 GDP를 넘어선 G5이고, 인구가 14억 명에 달하며, 평균 연령이 28세인 젊은 국가다. 중국은 이미 정체기로 접어들었고, 수출, 투자로 먹고사는 우리나라에 중국을 대체, 보완할 나라로 인도만한 나라가 있겠는가? 인도상인, 소상인 그룹들에 대해 마음 준비는 하되, 열린 마음으로 다가서야 하는 이유다.

※ 이 글은 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KOTRA 및 한국무역신문의 입장과 관계가 없음을 밝힙니다.

김문영은 1992년 KOTRA에 입사해 인도에서 8년 동안 근무한 인도 전문가로 KOTRA 서남아지역본부장을 역임했으며 2021년 8월 귀국하여 현재 KOTRA 인도경제경영연구소장으로 근무 중이다. 저서로 ‘3000년 카르마가 낳은 인도상인 이야기(2021)’가 있다.

# 신차출고, 최소 6개월? 하모니렌트카는 즉시출고!

하모니렌트카  
HARMONY RENTCAR



# 믿고 타는 동반차 중고렌트!  
# 바로 확인하는 실시간 견적!

하모니렌트카는 특별합니다.



동반차 신차 장기렌트  
대기없이! 심사없이! 상황별 맞춤상품!

동반차는  
'함께, 더불어'의  
의미를 담은  
무심사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동반차 중고재렌트  
전문 정비사가 관리하는 믿음직한 렌트카!



실시간 견적  
원하는 차량과 옵션으로 확인하는 렌트료!



신뢰가 기본, 하모니렌트카!  
렌트 고민은 하모니렌트카로 해결하세요!

렌트 문의  
1661 - 9763



# 엑스코, 전국 최초 메타버스 전시컨벤션센터 구축

## 전시장·회의실을 메타버스 공간으로... 지역 MICE 산업의 디지털 혁신 선도



전시컨벤션 메타버스구축 업무협약 기념사진. 오른쪽 네 번째 (주)엑스코 대표이사 사장 이상길, 오른쪽 다섯 번째 (주)메시인터내셔널 김분희 대표. [사진=엑스코 제공]

(주)엑스코는 11월 7일 글로벌 전시컨벤션 전문기업인 (주)메시인터내셔널과 메타버스 기반의 가상 전시장 구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전국 전시컨벤션 시설 최초로 메타버스 전시컨벤션센터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업무협약의 세부 내용은 ▷엑스코 전시장 및 회의실의 메타버스 구축에 대한 협력 ▷하드웨어 및 이동통로 등 주요 필요정보 지원 ▷ICT 지원 사항 분석 및 검토 ▷R&D 플랫폼 구축과 관련된 테스트 및 자문으로, 양사가 보유한 역량과 인프라를 연계해 메타버스 공간을 조성해나갈 예정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엑스코는 전시장과 회의

실의 메타버스 공간 구현을 추진한다. 이 협약이 이행되면 전국 전시장 가운데 최초의 메타버스 전시컨벤션센터가 등장하게 된다. 이에 따라 국내외 전시·회의 주최자들은 실제 현장에 방문하지 않고도 행사를 구상할 수 있어 신속성과 편의성을 도모할 수 있다.

메타버스 전시장에서는 블록부스·조립부스 등 부스 타입을 선택하고 부스 및 광고 시설물 등의 배치 시뮬레이션이 즉각적으로 가능하도록 하여 실제 전시장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현장감을 제공한다. 이로써 최적의 전시장 조성과 참관객들을 위한 편리한 동선 설계가 가능해질 예정이다. 또, 메타버스 회의실에서는 회의 성격에 따라 필요

장비의 비치, 회의실의 분할 등 공간을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소규모 회의부터 전시회와 연계된 대규모 회의까지 직접 구상할 수 있다.

이번 업무협약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주관한 전시컨벤션 통합 지원 R&D 사업과 연계하여 지역 대표 전시컨벤션센터인 엑스코의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자 마련되었다.

한편, 엑스코는 메타버스의 '시공간의 초월'이라는 장점을 적극 활용하여 환경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지역 MICE 산업의 디지털 혁신을 선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메타버스 공간에서 전시·컨벤션을 실제로 개최할 수 있는 단계까지 발전시키기 위해 엑스코의 대표 주관 전시회인 '국제소방안전박람회'를 메타버스 전시회로도 구현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3일간 개최했던 소방안전박람회를 상시로 마련하게 되면서 참가업체와 바이어 간의 상담과 구매, 계약 체결 등 비즈니스 교류가 연중 지속되도록 발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9일부터는 가상 전시장 구현의 핵심기술들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대한민국 ICT 융합엑스포'가 사흘간 엑스코에서 개최됐다. 특히, 이번 전시회는 대구 유일의 AI 박람회인 '인공지능국제산업전'과 동시 개최되어 대구시의 ABB 산업의 발전방향과 국내의 최신 ICT 기술 트렌드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길 엑스코 대표이사 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전시컨벤션산업의 시공간 확장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구축될 메타버스 플랫폼을 기반으로 전시컨벤션 이해관계자들에게 양질의 비즈니스와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채 기자

## 킨텍스, 한국 최초로 국제컨벤션협회 이사회 진출

경기 고양시의 킨텍스는 컨벤션 분야의 가장 권위 있는 국제기구인 '국제컨벤션협회(이하 ICCA)'의 이사회 멤버로 새롭게 선정됐다고 밝혔다. 킨텍스는 2년 동안 ICCA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총 15명)에서 활동하며 연간 사업 계획과 예·결산 승인, ICCA 개최지 선정 등 주요 의사 결정 과정에서 주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사회 구성원으로 선정된 킨텍스 양주윤 컨벤션마케팅 팀장은 뉴질랜드관광청(Tourism New Zealand)과 태국 QSNCC 컨

벤션센터의 운영사(N.C.C. Management and Development)의 추천에 따라 후보로 지명돼 최종 당선됐다. ICCA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본부를 둔 글로벌 컨벤션 산업을 대표하는 세계 최고권위의 국제기구로 100여 개 국가가 참여하고 있다.

박종근 킨텍스 사업 부사장은 "킨텍스는 이번 기회를 계기로 대한민국 마이스산업의 국제적 위상 강화에 크게 기여하고 국제협력을 활발하게 이끌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채 기자

## 뒤셀도르프 'GMTN' 설명회 12월 8일 진행

독일 국제금속산업전시회 'GMTN 2023'은 캐스팅·야금·주조 등 전 세계 뿌리산업의 핵심적 분야를 총망라하는 전시회다. 4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전시회로 내년 6월 12일 독일 뒤셀도르프에서 개막한다.

이 전시회의 한국대표부인 라인메세는 한국기업들과 관계자를 대상으로 이 전시회에 대한 설명회를 12월 8일 서울 더플라자호텔 오키드홀에서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 GMTN 주최사 메세 뒤

셀도르프의 프리드리히 게오르그 케러(Friedrich-Georg Kehler) 담당이사가 직접 연사로 나서 방문객과 기자들이 알아야 할 GMTN 2023의 필수 정보를 전달한다.

GMTN은 주조 전시회인 'GIFA'와 야금 전시회 'METEC', 열처리 전시회 'THERM PROCESS', 캐스팅 전시회 'NEWCAST' 네 전시회를 묶은 통합전시회다. 개최주기는 4년으로 지난 2019년도 전시회에는 127개국에서 약 7만2500명이 방문하고, 2360개사가 참석했다. 문의 02-798-4343 김영채 기자

## 한국국제사인디자인전, 최신 트렌드·장비 선보여

코엑스와 한국옥외광고협회중앙회가 주최하는 국내 최대 옥외광고업 전문 전시회인 '한국국제사인디자인전(KOSIGN 2022)'이 11월 10일부터 사흘간 삼성동 코엑스 A홀에서 개최됐다. 올해로 30회째를 기념하는 이번 한국국제사인디자인전은 프린팅 장비, 소재, 후가공 장비를 포함한 다양한 옥외광고 관련 분야 기업들이 400여 부스 규모로 참가하여 업계 최신 트렌드와 신장비를 선보였다.

특히 이번 코사인전은 중장기적으로 옥외광고 시장의 확장을 선도할 디지털 프린팅 관련 기업이 대거 참가하여 업계 내 새로운 영역에서 신기술이 어떻게 접목되고 활용되는지를 한 눈에 볼 수 있어 업계 관계자와 참관객

들의 관심을 끌었다. 또한, 11일 진행된 옥외광고업 내 ESG 트렌드와 지속가능성을 위한 사이니지를 논하는 전문 세미나에 업계 관계자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이번 세미나는 각 세션별로 '지속가능성', '친환경과 미래의 사이니지'를 주제로 열렸다.

올해는 행정안전부가 주최하고, 코엑스와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주관하는 '2022 대한민국 옥외광고산업전'이 동시 개최됐다. '동행, 옥외광고 오늘과 내일'을 주제로 열리는 이 행사에서는 업계 성과 공유, 관련 정책 홍보 등 옥외광고 산업의 현주소와 발전 방향을 한눈에 제시했다. 김영채 기자

## 킨텍스 "인도 국제전시컨벤션센터 공정률 75%"

킨텍스는 향후 20년간 운영권을 수주한 인도 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공사가 75% 공정률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최근 밝혔다.

킨텍스는 지난 9월 인도 정부와 공사 현장 합동점검을 하고 그동안 온라인 화상회의로 진행한 시안들을 살펴봤다.

인도 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공사는 하루 기준 약 6000명 이상의 공사인력이 투입되며 빠르게 속도를 내고 있어 내년 말 개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인도 정부는 접근성 개선을 위해 '인디라 간디 국제공항'과 호텔들이 모여 있는 '에어 로시티', 뉴델리 핵심 상업지역 '코넛플레이

스' 등을 잇는 공항철도 노선 연장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성현 킨텍스 기획조정실장은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한 해외 출장이 제한돼 현장 합동 점검을 하지 못했다"면서 "현재 순조롭게 건립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곧 킨텍스가 운영하는 인도 전시장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도 국제전시컨벤션센터는 약 100만㎡ 규모의 서남아 최대 전시컨벤션 복합지구에 들어서는 전시면적 30만㎡의 인도 최대 규모 전시장이다. 킨텍스는 2018년 프랑스, 홍콩, 싱가포르 등의 전시장 운영사와 경쟁해 향후 20년간의 운영권을 수주했다. 고양=연합뉴스



독일 국제금속산업전시회 'GMTN 2023'의 한국 설명회가 12월 8일 열린다. 사진은 지난 화차 전시회. [사진=라인메세 제공]



시진핑(왼쪽)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10월 31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응웬 푸 쯙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과 손을 잡고 함께 회담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 외교 길 당근 흔들는 ‘3연임’ 시진핑

‘하나의 중국’ 지지한 베트남·파키스탄에 농식품 시장 추가 개방  
이달 중순 G20 정상회담에서 이뤄질 논의에 국제사회 이목 집중

최근 3연임을 확정하고 권력을 크게 강화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국제 활동을 크게 늘리고 있다. 시 주석은 11월 초 탄자니아, 파키스탄, 베트남, 독일의 국가 지도자들을 베이징에서 맞았다. 이달 하순에는 인도네시아에서 열리는 주요국 20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이에 대해 미국(CNN)은 서방과 갈등이 고조됨에 따라 중국의 입지를 다지려는 생각임을 보여준다고 7일 보도를 통해 해석했다.

시 주석은 지난달 당대회에서 중국에 직면한 외부의 위협을 경고하며 “외부 세력이 중국을 능가하고 압박하려는 암울하고 복잡한 국제적 상황”에 따른 위협이 “언제든 고조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해당 발언에 대해 스티브 창 런던대 중국 연구소장은 “시 주석이 갈수록 중국에 호의적이지 않은 국제적 환경으로 중국이 큰 위협에 직면할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고 했다.

그는 시 주석이 “당초 생각보다 코로나 위험을 통제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린 것이 분명하다”며 외교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건 그가 강조한 역풍을 이겨내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선 미 스타imson센터 중국 프로그램 책임연구원도(CNN)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에 가장 큰 어려움은 미국과 관계 악화 문제”라며 “미국이 적대적으로 되면서 중국은 서방과 관계에 역풍을 맞고 있다. 특히 경제적 관계가 약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은 경쟁자로서 미국에 직접 맞서기보다 다른 나라들의 지지와 연대를 모색할 것”이라며 “시 주석이 중국이 세계에 여전히 관여하고 있고 마땅한 책임을 다하려 한다는 것을 보여주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3년 가까이 스스로 고립돼 있다가 다시 외교 무대에 나서는 시 주석으로서 “따라잡아야 할 일이 많다”고도 강조했다.

최근 중국 외교는 정치적인 문제로 무역 전쟁을 벌여온 호주와도 다시 손을 맞잡고, 정치적 입장을 함께하는 국가들에는 시장을 열어주는 등 ‘당근’을 내미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중국이 취해온 ‘전랑(戰狼) 외교’ 노선과는 대조적이기에 더욱 이목이 쏠린다. ‘늑대 전사’로도 번역되는 전랑은 중국에서 역대 최다 관객 수를 기록한 국수주의 액션 영화 제목으로, 중국을 견제하는 서방 진영에 강경하고 공세적으로 맞서는 외교를 의미한다.

이러한 전랑 외교는 전 세계적인 반중 감정이 격화되는 역효과도 낳고 있다. 중국의 코로나19 책임론과 인권 문제 제기는 물론, 러·우 전쟁에서 침략자인 러시아의 편을 들고 있다는 비난도 거세다. 이는 강제노동 수입금지 법안 등 공급망 디커플링으로까지 이어지는 추세다. 중국 당국이 이러한 반중 움직임의 확산을

견제하기 위해 온건한 외교 노선으로 선회함으로써 관계강화에 나서고 있다는 풀이다.

● ‘하나의 중국’, 지지 대가는 농식품 시장 개방 = 중국은 주변국에 ‘하나의 중국’ 정책을 지지받는 대가로 농수산물 시장을 더 개방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관영 <중국중앙(CCTV)> 등은 시 주석이 10월 31일 저녁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쯙 서기장과 회담을 가졌다고 보도했다. 베트남 권력 서열 1위인 응웬 푸 쯙 공산당 서기장이 방중을 계기로 대만의 분리독립을 반대 입장을 표명하자 중국이 베트남 농수산물 수입을 확대하는 것으로 화답했다.

2일 대만 중앙통신 등은 이날 발표된 중·베트남 공동성명에는 베트남이 대만 분리독립을 반대하고 중국이 일부 베트남 농수산물 수입을 허가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전했다. 쯙 서기장의 중국 공식 방문을 계기로 양국은 총 13개 조항의 양국 전면적협력동반자 관계 강화 및 심화 관련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양국은 성명에서 “양국은 농식품 상호 수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면서 “중국은 베트남산 고구마, 감귤, 제비집의 중국 수입 승인을 추진하고 베트남은 중국산 유제품의 수입 승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성명에는 또 “베트남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키고 양안 간 평화발전, 중국의 통일 대업을 지지하며 그 어떤 형식의 대만 독립 활동도 반대하고 대만과 그 어떤 공식적인 관계도 맺지



【베이징=신화/뉴시스】

수출을 확대하는 것을 추진하고 디지털 경제·전자상거래·재생에너지 관련 협력을 확대하며 농업·과학기술·민생 등 분야의 협력을 내실 있게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시 주석은 "세계는 전례 없는 변화의 시기에 직면해 있다"면서 "양국은 역사의 '정확한 편'에 함께 서 있어야 하고 중대한 국제적, 지역적 현안을 둘러싸고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샤리프 총리는 "지난 10년간 시 주석의 리더십으로 중국은 기적으로 불리는 위대한 성과를 이뤄냈다"면서 "시 주석의 탁월한 리더십은 앞으로 중국이 더 위대한 성과를 이뤄내도록 이끌고, 세계를 더 아름다운 미래로 이끌 것"이라고 화답했다.

이어 그는 "파키스탄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변함없이 실행하고 대만·티베트·홍콩 등 핵심이익 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견고하게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양국 간 우정은 무너뜨릴 수 없고, 파키스탄은 영원히 중국 편에 서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회담 이후 시 주석은 샤리프 총리를 위해 인민대회당에서 환영 만찬을 개최했고, 3기 외교와 경제 실무 사령탑 역할을 각각 맡을 것으로 예상되는 왕이 중국 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과 허리펑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이 행사에 참석했다.

샤리프 총리의 이번 방중을 계기로 양국은 47개 조항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양국은 성명에서 "양국은 상호 핵심이익과 연관된 문제와 관련해 상호 지지하기로 했다"면서 "파키스탄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변함없이 실행하고 대만·남중국해·홍콩·신장·티베트 등 사안과 관련해 중국을 지지하고 중국은 주권·독립·안전 수호 및 사회 발전 번영 등 측면에서 파키스탄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또 "양국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파키스탄의 대중국 수출을 확대하고 파키스탄의 고품질 식품과 농산물 중국시장 수출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눈길은 오는 11월 중순 G20 정상회담으로** = 오는 11월 15일부터 16일까지 인도네시아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담에서도 시 주석은 비슷한 행보가 이어갈 것이 전망된다.

〈월스트리트저널〉은 3일 보도를 통해 조 바이든 미 대통령-시진핑 중국 주석 정상회담은 갈수록 격화하는 양국의 경쟁 구도에 시금석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미 당국자들은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시 주석과 만나는 문제를 두고 씨름해 왔다. 개최된다면 바이든 미 대통령 취임 이래 처음으로 열리는 직접 대면 정상회담이 될 수 있다. 중국 당국자들은 시 주석의 3연임 과정이 끝나고 나서부터 정상회담 개최 문제에 관심을 두기 시작했다.

시 주석은 지난 7월 화상 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에게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 중단을 요구했지만, 바이든은 이를 거부한 바 있다. 펠로시 의장이 대만을 방문한 뒤 중국은 대규모 군사훈련을 벌였고 미 정부는 중국의 기술 발전을 방해하려 반도체 수출금지 조치를 내렸다.

전문가들은 미중 간 갈등 구도는 앞으로 더 심해질 것으로 전망한다. 국무부 고위 당국자 출신인 수전 스톤 예일대 법대 풀차이 중국센터 연구원은 "양국 관계의 바다가 어딘지를 알 수 없다"며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양국 정상이 직접 만나 대화해 긴장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중 정상회담 이뤄진다면 어떤 말**

갈까 = 외교통상 당국자들은 정상간 만남을 가장 효과적인 의사소통 수단으로 보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시절인 2017년 이래 미국과 중국 정상은 양국을 공식방문한 적이 없었다. 그간 미중 회담은 화상 회담이거나 다른 국제행사에 부연해 열린 것이었다.

바이든과 시진핑은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이던 시절 처음 만났다. 이후 최근 몇 년 새 양국 간 불신이 커지고 팬데믹이 발생하면서 고위급 접촉 빈도가 크게 줄었다. 이때문에 이번 정상회담은 어느 때보다 중요성이 커졌다.

지난여름 초 중국 당국자들은 G20 정상회의가 중국 당대회와 미국 중간선거 이후에 열리므로 바이든과 시진핑이 만나기에 좋을 때라고 분석한 바 있다.

미중 정상회담에서는 대만 문제와 미국의 기술수출 통제,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러 관계 등이 의제가 될 전망이다. 민감한 주제를 다루는 만큼 양국 간 오가는 언행의 수위에도 이목이 쏠린다.

앤서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지난 11월 3일 주요 7개국(G7) 회의에서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을 줄이는 전략을 언급했다. 이 전날 시진핑 중국 외교차관은 베이징 주재 각국 대사 등을 소집해 대중국 동맹 결성을 비난했다. 그는 테슬라가 중국이 인권을 탄압하는 것으로 비난받아온 신장 지역에 지점을 개설한 것을 칭찬했다.

중국은 미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승리하면 미 정부가 아닌 의회가 대중국 정책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나 한국무역협회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미국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승리해도 대중 강경노선 등 미국의 주요 통상정책이 크게 바뀌지 않으리라고 전망했다.

최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니콜라스 번즈 주중 미 대사와 블링컨 국무장관을 연달아 만난 자리에서 미국의 기술수출 통제를 비난하고 미국이 대중 역제와 압박을 중단하도록 촉구한 바 있다.

다만 미 당국자들은 왕이 외교부장이 미 당국자들과 만난 것을 긍정적 신호로 평가한다. 시 주석이 미국의 비영리단체 미중관계위원회 행사에 서한을 보낸 것도 마찬가지다. 시 주석은 서한에서 "중국은 미국과 함께 양국이 잘 지낼 수 있는 올바른 길을 찾을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미중 패권 다툼에도 디커플링 여전히 요원** = 미중 관계가 악화한 상황임에도 중국이 온건한 외교 노선에 나선 가운데, 전문가들은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양국이 대화에 나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양국 경제가 극단적인 디커플링에 이르는 것은 어렵기 때문이다.

〈파이낸셜타임스〉는 3일 에디터 칼럼을 통해 미국의 대중국 견제에도 양국 경제의 상호 의존성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1년 기준 중국은 미국의 최대 수입 상대국이며 수출액도 같은 북미 역내국인 캐나다, 멕시코를 제외하고는 최대 규모라는 것이다.

기사는 "핵보유국인 미국과 소련 간의 냉전이 상호 파괴를 담보한 것이었다면, 오늘날의 미중 무역 전쟁은 양국 경제의 상호 의존성 때문에 상호 협력이 담보될 수밖에 없다"며 "이러한 양국의 미묘한 관계를 가장 잘 보여주는 기업이 바로 애플"이라고 짚었다.

애플은 시총 기준 미국 1위 기업이자 매출의 18%와 공급망 대부분을 중국에 의존한다. 이런 애플에 미국 당국이 함부로 중국 사업을 철퇴하라고 명령할 수 없으며, 중국 역시 애플의 중국 내 사업을 중단시키고 자국 소비자들에게 아이폰을 구매하지 말라고 명령할 수는 없다는 분석이다.

일부 미중관계 전문가들은 지난 수십 년 이래 중국의 경제 성장이 최저수준으로 떨어지면서 미국과 맞대결할 상황이 아니기에 중국이 미국과 관계를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조지타운대 교수 에반 메데이로스 교수는 단기적으로 "시 주석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강화할 시간을 벌기 위해 양자 관계강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중국 정부는 지난 11월 2일 인텔, 제네럴모터스, 애플 등 중국 내 주요 미국 기업 대표들과 만나 양국 간 긴장 고조에 따른 불안감을 진정시키려 노력한 바 있다.

이는 지난 4일 올라프 솔츠 독일 총리가 베이징을 방문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솔츠 총리와 동반한 경제사절단에는 올리버 블루메 폭스바겐 최고경영자(CEO), 롤란드 부쉬 지멘스 CEO, 크리스티안 제임 도이체방크 CEO, 마르틴 브루더뮐러 BASF 이사회 의장 등 독일 재계 유력 인사들이 포함됐다.

중국이 기술 자립과 공급망 자립을 꾀하고는 있으나 높은 기술력을 가진 독일계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는 여전히 중국 산업계에 필수적이다. 그러나 2021년 독일기기업회 VDMA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 중 3분의 1 이상이 중국과 사업 관계를 재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시진핑 주석으로서 3연임을 맞아 추진하는 '공동부유'나 계속되는 '제로코로나' 등의 정책이 중국의 성장 동력을 떨어트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 이를 불식시켜야 하는 처지다. 부동산 경기 침체와 그에 수반하는 금융 불안, 그리고 중국에서 급속도로 빠져나가는 글로벌 자본도 중국 경제에 경고장을 날리고 있다. 김영채 기자



11월 2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오른쪽)이 셰바즈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와 회담에 앞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베이징=신화/뉴시스】

샐러리맨 30년 현직 CEO가 전하는

# 슬기로운 직장생활 29

## 너무 평범함에 대한 감사

매일 아침 지인이 보내오는 감사의 글들을 읽는다. 이 가운데 일부다. "1. 늦잠을 자게 하심을 감사 2. 지하철을 정시에 타게 하심을 감사 3. 늦잠에도 지각하지 않음을 감사 4. 아침에 물 한 잔을 마시게 하심을 감사 5. 출근할 수 있는 건강에 감사."

그가 보내온 5개의 감사를 보면서 깊은 감동을 느낀다. 보는 각도에 따라 전혀 감사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진정 감사가 넘친다. 크게 좋은 일이 있어야 감사함이 나올 것 같은데, 현실은 정반대인 것이다. 너무 시시한 감사 제목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다.

그 다음 날 또 감사의 글이 도착한다. "1. 저녁을 함께 먹는 아내가 있어 감사 2. 안부 전화를 할 부모님이 계셔 감사 3. 봄날의 개나리를 보게 하심에 감사 4. 아침 햇살에 감사 5. 오늘도 건강을 주셔서 감사." 이번 내용 역시 지난번과 크게 다르지 않다. 너무 일상적인 내용이고, 나도 똑같은 상황이어서, 나는 감사하고 있는지 반성하게 된다.

그렇다. 여기서 진리가 발견된다. 감사는 결코 환경과 여건에 있지 않다. 매일 매일 감사의 글을 나누는 입장에서 감사는 평범한 일상이 그 대상이어야 더 의미가 있고 우리 인생에 긍정의 힘을 더 심어 준다.

만약 감탄하고 엄청난 이익을 줄 내용만 감사 대상으로 삼는다면 우리는 한두 번 감사하다가 그만둘 것이다. 내용상 특별하여 감사가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면 그사람만의 것으로 제한된다. 다른 사람 입장에서 감사함이 곧바로 사라지고 공감하지 못하게 된다.

어찌 보면 감사할 필요가 없는 사실에 감사하는 것이 진정한 능력이라는 생각이 든다. 누구나 할 수 없으니 더 가치가 높아지는 이치다.



감사가 일상의 루틴이 되면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다. 감사가 감사를 낳고 오늘이 인생에서 가장 기쁜 날이 되는 것이다. 감사가 내 능력 안에서 관리되니 내가 만들어 낼 수 있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조직 내 다른 사람에게 보다 기쁘고 친절하게 다가갈 수 있는 디딤돌이 된다는 점이다. 감사함으로 모든 것이 무장 되어 있는 사람이 어찌 상대에게 거부감을 야기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죽어서만 천국을 가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천국 생활은 이 세상에 살아 있는 동안 맛보아야 하고 지금 내 인생에 끌어들이야 한다. 그 키(key)는 감사함으로 내 마음을 채우는 것이다. 그 양이 늘어날수록 다른 것이 헤집고 들어간 틈은 점점 작아져 결국에는 감사로만 삶의 공간이 채워질 것이다.

감사는 기적이라는 표현을 본 적이 있다. 우리의 삶과 가정이 죽은 고목과 같을지라도 감사로 인해 꽃이 피어나기 때문이라는 설명도 붙어 있다.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마다 목표를 정해놓고 숨 가쁘게 달려간다. 속도에 신경 쓰고 결말에 일희일비하니 나 스스로는 물론 주위의 아름다운 풍경을 볼 틈도 없다. 반대로 어둠에 휩싸여 아예 달려볼 준비도 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다.

어떤 사람이 죽어서 하나님 앞에서 섰다고 한다. 너무 힘들게 살아온 나머지 하나님께 따지려고 잔뜩 버르고 있었다. 아니, 태어나게 했으면 좀 잘살게 해야지 왜 아무것도 주지 않았냐는 불만으로 가득 찼기 때문이다. 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큰 창고를 보여주면서 너를 위해 네 집 창고 안에 이런 선물을 잔뜩 모아 놓았는데 왜 사용하지 않았냐고 물었다고 한다.

평범함에 대한 감사가 없으면 보물은 보이지 않는다. 어릴 적 소풍에서 보물을 찾는 사람만 찾고 대부분은 빈손인 것은 보물이 없어서가 아니다. 평범함이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더 낮은 자세로 우리의 삶을 해석해야 한다. 소풍 때 보물은 우리가 손이 안 닿는 나뭇가지 끝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무 밑동에서 발견되는 법이다.

민영채 | W커뮤니케이션 대표



### 최영진의 풍경

#### 무심한 계절

나들이 한 번 하고 돌아왔더니 입동(立冬)이라 한다. 미련 가질 것 없다. 늦듯 가을은 늘 그렇게 훌쩍 떠난다. <사진가>

**중국, 수입품 다양화 · 고급화 추세**

한국무역협회 청두 지부는 <중국신문망> 보도를 인용해 “중국의 전자상거래 플랫폼 징둥이 발표한 ‘2022 중국 수입품 소비 보고서’에 따르면 과거 1년간 중국 소비자들의 수입품 수요가 다양화, 고급화 추세를 보였다”고 전했다. 지난 1년간 징둥에서 휴대폰, 화장품, 전통 보양식품, 가구, 식품 및 음료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 가운데 수입 브랜드를 선택한 비중은 증가한 반면, 수입 보건식품, 액세서리, 아웃도어용품, 시계, 안경, 완구 및 악기 등의 구매 비중은 감소세를 보였다. 1~9월 징둥의 수입 브랜드 매출에서 휴대폰, 컴퓨터, 영유아 및 임산부용품, 화장품, 가전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았다. 또한 징둥 수입 브랜드 소비자 중 26~45세의 비중이 가장 크고 46~55세의 소비액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이용석 기자

2022년 11월 14일

# 바지 교복 즐기는 여학생... 일본에 젠더리스 바람이 분다

“보편적 디자인으로 장벽 없앤다”

여러 분야로 확산될 것으로 전망

최근 일본의 수영용품 메이커 풋마크가 출시한 ‘젠더리스(genderless)’ 학생용 수영복이 일부 학교의 공식 수영복으로 채택돼 화제를 모았다. ‘젠더리스’란 남성과 여성의 구별이 없는 ‘유니섹스(unisex)’와 달리 옷을 입은 사람의 성별과 연령대를 짐작할 수 없는 차림새를 뜻한다.

풋마크는 수영복 하의를 통이 넓은 반바지로 디자인하고 가슴과 허리 부분도 폭을 넉넉하게 해 착용자의 신체적 특징이 드러나지 않게 했다. 가슴 쪽에는 패드를 넣을 수 있는 주머니도 달려 있다. 회사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일본 내 3개 학교가 이 수영복을 공식 수영복으로 채택했고 내년에는 10개 학교가 채택을 검토 중이다.

일본의 경우 대부분의 학교에 수영장이 설치돼 있고 체육수업의 일환으로 수영을 가르치고 있다. 사면이 바다에 둘러싸인 섬나라이기도 하고 1950년대 모 학교 수영 수업에서 발생한 대규모 익사 사고를 계기로 일본 문부과학성이 학습 지도요령에 수영 수업을 정식으로 포함시켰다. 일본에서 학교 수영복은 유행의 변천에 따라 변해왔으며 최근에는 점차 피부 노출을 줄이고 신체적 특징이 드러나지 않는 디자인이 선호되고 있다.

젠더리스 추세는 학교 수영복뿐만 아니라 교복에도 나타나고 있다. 자신의 생물학적인 성과 심리적인 성의 정체성이 일치하지 않는 성 정체성 장애를 지닌 학생에 대한 배려 등의 관점에서 여학생에게 바지 교복을 선택할 수 있게 허용하는 학교가 늘어나고 있다. 꼭 젠더 관점에서가 아니라 방한성이나 편리한 착용감 등 기능적 측면을 중시하는 추세다.

일본의 대형 교복 브랜드 칸코학생복의 홍보 담당자에 따르면 최근 3~4년 사이 젠더리스 교복을 도입하는 학교가 크게 늘었다. 여학생용 바지 교복은 1997년부터 홋카이도나 나가노현처럼 눈이 많이 내리는 지역에서 도입되기 시작했는데, 2015년 문부과학성이 성 정체성 장애 학생에 대한 세심한 대응을 교육위원회에 통지한 이후 도입이 확대됐다.

칸코학생복이 취급하는 젠더리스 교복을 정식 교복으로 채택한 중고등학교는 2021년 기준 1000군데 이상이다. 젠더리스 교복은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잘 드러나지 않도록 남녀 공용 디자인을 채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단추 방향을 좌우로 자유롭게 바꿀 수 있는 재킷이나 체형이 잘 드러나지 않는 디자인의 바지 등이 있다.

젠더리스 교복을 채택하는 학교가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 일본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수준은 아니다. 바지 교복을 이용하는 여학생은 제법 있지만 치마를 입는 남학생은 거의 없는 등 남녀 간의 심리적 장벽까지 해소하려면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의류업계뿐만 아니라 완구업계에도 젠더리스 바람이 불고 있다. 올해 6월 개최된 일본 최대 완구 전시회 ‘도쿄 완구 쇼’에서도 젠더리스 제품이 잇따라 등장했다. 일본의 완구기업 파일럿코퍼레이션은 지난 4월 대표 제품인 아기인형 ‘멜짱’ 시리즈에서 처음으로 남자 아기인형을 선보였다. 이 회사에 따르면 인형 놀이를 하고 싶은 남자 어린이가 부담 없이 놀 수 있도록 하자는 의도에서 남자 아기인형을 개발했다. 유년기의 놀이 경험이 성인이 된 이후 올바른 성 평등 인식을 갖는 데 중요한 영향을 할 것이라는 발상에서다. 또 다른 완구기업 타카라토미도 3월 팡이놀이 완구 ‘베이블레이드버스트’에 고양이 캐릭터 ‘헬로키티’를 공식 홍보대사로 기용했다. 베이블레이드는 그동안 남자 어린이를 중심으로 시장을 넓혀왔지만 여자 어린이에게 인기 있는 헬로키티를 모델로 기용해 새로운 팬층을 개척한다는 계획이다.

젠더리스 상품 개발 움직임은 일본 내 다양한 업계로 확대될 전망이다. 젠더리스를 성별과 관련된 좁은 의미로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넓은 관점에서 소비자의 감춰진 심리적 장벽을 허문다고 이해한다면 비즈니스의 보편적, 핵심적 가치와 직결되는 것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휠체어 경사로나 장애인용 엘리베이터가 없는 지하철역에 관련 시설이 완비됐다고 하자. 과연 이는 휠체어 이용자나 장애인에게만 이익을 줄까? 그렇지 않다. 휠체어 경사로나 장애인용 엘리베이터는 유모차 이용객이나 여행용 캐리어 이용객에게도 요긴하다. ‘배리어프리(barrier free)’ 시설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구분 없이 모두에게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배리어프리(장벽을 제거하는 것)’는 단순히 일차적으로 그와 연관된 사회적 약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 구성원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인데, 이런 점에서 젠더리스도 마찬가지다.

장벽을 제거한다는 관점에 가장 충실한 것은 바로 ‘유니버설 디자인(공용화 설계)’이다. 유니버설 디자인은 보편적인 디자인이라는 말뜻 그대로 장애의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무리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도구, 시설, 설비를 설계하는 디자인을 뜻한다. 특정한 이들의 장애, 장벽, 불편 등을 제거하는 배리어 프리 개념을 한층 진전시켜 국적, 성별, 연령, 능력 등의 차이를 초월해 모든 이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물건과 거리와 환경을 만든다는 철학이다. 예를 들어 악력이 약한 사람도 쉽게 물건을 자를 수 있는 개량 나이프, 글씨를 몰라도 누구나 쉽게 의미를 알 수 있는 안내 표시 픽토그램 등은 이미 우리 실생활 속에 널리 보급돼 있으며 모든 이들의 생활을 풍요롭게 해주고 있다.

전 세계 30개국 이상의 다양한 인재가 모여 협업하는 후불 결제 서비스 페이디의 실

비아 최고마케팅책임자(CMO)는 “다양성과 포용(D&I)의 시대에는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고 누구나 한 명 빠뜨리지 않는 서비스와 상품, 즉 유니버설 디자인을 구현하겠다는 감각이 중요하다”면서 “우리도 그 부분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쿄 무역관

## 일본, ‘엔저’ 활용방안 고민

일본 정부와 기업들이 ‘엔저’를 활용하는 방안을 두고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도쿄 지부에 따르면 도쿄의 마쓰야 긴자 면세점의 10월 11~19일 매출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12배로 늘어났다. 이는 코로나19 감염 확산 전보다는 미흡한 수준이지만 방일 관광객의 소비활동이 활발해지는 징조로 분석되고 있다. 또한 다카시마 야백화점에 따르면 10월 11~18일 수도권 대형점 면세 매출은 2019년 같은 기간 대비 20% 정도 늘어났는데 싱가포르와 홍콩, 대만 등지의 여행객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엔저 효과는 외국인들의 일본 부동산 투자에도 영향을 미쳐 부유층뿐만 아니라 중산층도 구입 의욕이 커지고 있다. 코로나팬데믹 이전에도 중국인들의 일본 부동산 투자는 활발했지만 코로나19로 거래가 격감했다가 감염병 완화와 엔저로 다시 활기를 띠고 있다.

일본에서 수입가격을 올리는 엔저 현상은 가계 부담이 한층 커지며 엔저가 급속하게 진행되면 수출기업의 실적을 끌어올리는 플러스 효과보다 가계에 주는 마이너스 영향이 더 주목돼왔다. 이용석 기자



**아프리카 벚꽃과 오페라하우스** 11월 7일 호주 시드니의 오페라하우스 인근에 자카란다꽃이 활짝 피어 있다. ‘아프리카 벚꽃’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이 꽃나무는 주로 남부 아프리카, 호주, 미국, 칠레 등에서 자란다. 남반구의 봄에 해당하는 9월 말에서 11월 중순까지 보라색 꽃을 피운다. 【시드니=신화/뉴시스】

# 미국, ESG로 더욱 강조되는 '다양성'과 '포괄성'

## 기업의 사회적 포용성 강조 추세

미국에서 성적 가치관이나 인권 존중은 자주 회자되는 주제 중 하나이며 기업들도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가운데 '사회'에 주목하고 있다. 미국 기업들이 중시하는 '다양성'과 '포괄성'이 갖는 의미와 대응을 살펴보자.

● **중요성 커지는 '사회' = ESG**란 기업의 비재무적 경영 지표로 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뜻하며 지금까지는 기후 변화와 환경 문제에 대응하는 '환경' 요소가 가장 크게 대두돼왔다.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 가능성'이 핵심으로 자리 잡았고 탄소 배출이나 쓰레기 발생을 최대한 줄여 환경에의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움직임은 이제 미국 소비자들에게 익숙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요즘에는 '사회' 요소의 중요성도 커지는 추세다. 여기에는 기업의 채용 및 인사관리의 공정성,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등 임직원 뿐만 아니라 모든 소비자에게 공정하고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적 가치의 실현까지 모두 포함될 수 있다. 기업 운영과정에서 성별,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 인종, 나이, 국적, 종교, 문화, 사회 및 경제적 지위나 배경 등 사회 구성원들의 다양성에 대한 모든 요소를 고려하고 이로 인한 차별이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포용적인 접근 방식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되고 있다.

● **성적 다양성을 존중하는 기업들** = 지금까지 기업의 경영이나 마케팅 활동에서 상대적으로 덜 존중됐던 다양성의 요소로 단연 '성적 정체성'이 꼽힌다. 남성 혹은 여성으로 구분되는 전통적인 성별은 삶의 많은 영역을 결정짓는 핵심 잣대였다. 쉬운 예로 쇼핑할 때를 떠올려 보면 의류, 액세서리, 신발, 심지어 아기 제품까지도 대부분 남성과 여성이라는 이분법적인 분류가 적용된다.

그러나 최근 미국의 핵심 소비층인 Z세대를 필두로 이분법적 성별에 따른 소비를 원치 않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으며 보다 다양

한 성적 정체성을 인정하고 특별히 성별을 구분하지 않는 스타일을 추구하는 트렌드가 맞물리면서 성적 다양성과 포괄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기업들 역시 이러한 소비자의 인식과 니즈에 맞추며 다양성을 추구하고 있다.

패션업계와 뷰티 및 퍼스널케어 업계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이미 많은 기업들이 '젠더 인클루시브(Gender inclusive)' 인식에 동참하면서 제품과 마케팅을 선보이고 있다. 특히 패션업계는 '업계의 바이블'로 불리는 매체 'WWD'를 비롯해 많은 전문가들이 "패션의 미래는 젠더리스로 향할 것"이라고 예견한 가운데 리바이스나 어반아웃피터스, 게스 등의 캐주얼 브랜드부터 루이비통 같은 럭셔리 브랜드까지 많은 기업들이 앞다투어 젠더 인클루시브 컬렉션을 출시한 바 있다. 퍼스널케어 업계에서도 젠더 인클루시브를 표방하는 브랜드가 지속적인 인기를 얻고 있으며 이러한 움직임은 다양한 소비재 분야로 확산하고 있다.

〈ESG뉴스〉에 따르면 대표적인 소비재 다국적 기업 유니레버는 미국에서 특히 성적 다양성을 존중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유니레버는 4년째 '유나이티드 위 스탠드(United We Stand)'라는 타이틀의 캠페인을 운영하면서 다양한 성소수자(LGBTQI+) 커뮤니티를 지원 중이다. 미국에서도 성적 평등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루이지애나, 오클라호마, 앨라배마, 미주리 등지에서 성소수 커뮤니티를 위한 각종 치료 지원, 에이즈 바이러스(HIV) 예방교육, 청소년 노숙 문제 해결, 집단 괴롭힘 방지, 정신건강 및 영양케어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최근 자주 도마에 오르내리는 성적 다양성 및 자율성에 반하는 각종 입법에 반대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 역시 이 캠페인에 포함된다.

같은 맥락에서 지난 4월 플로리다주에서 제정된 성 정체성 관련 수업 금지법, 일명 '게이 언급 금지법'(Don't Say Gay Law)과 관

련해 반대 입장을 나타내며 성 정체성 보장에 힘을 실는 기업들도 많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에게 성 정체성 관련 교육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 법은 보수 성향의 공화당이 주도한 것으로, 주의회의 진보 진영을 비롯해 많은 학부모와 지역 구성원들 사이에서 논란이 된 바 있다. 플로리다주에서도 독창적인 지위를 가지고 영업활동을 해온 엔터테인먼트 기업 월트디즈니를 포함해 스타벅스, 핀터레스트 등 전국적으로 200개 이상의 기업들이 이 법에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특히 월트디즈니는 이 법의 폐지를 지지한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며 플로리다주가 내세운 각종 불이익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적극적으로 성 소수자 커뮤니티를 지지하는 다양성과 포괄성 추구에 앞장서고 있다.

● **인종, 종교, 문화를 아우르는 미국 시장** = 얼마 전 미국에서는 애플TV가 방영한 단편 드라마 시리즈 '로어의 첫 에피소드'가 화제가 된 적이 있다. '사라진 여자'라는 제목의 이 에피소드는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암암리에 각종 차별을 겪으며 정체성과 존재감이 점차 사라져가는 흑인 여성 이야기를 다뤘는데, 이를 통해 사회 권력의 흐름과 우리도 모르게 퍼져 있는 익숙한 인종 차별의 면모를 날카롭게 풍자해 주목받았다. 이는 자유와 다문화의 상징과도 같은 미국에서 아직도 인종, 피부색, 종교, 문화 등의 다양성이 100%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실제 미국은 다양한 인종으로 구성된 만큼 여러 피부색이 존재하고 개개인의 문화적 배경과 종교 역시 다양하지만 각종 특성에 따른 소비자 니즈는 완전히 충족되지 못했다. 일례로 피부 톤을 보정하는 화장품, 언더웨어나 패션 액세서리, 반창고, 심지어 학용품이나 인형 등을 생각해 보면 상대적으로 더 누렇거나 더 어두운 피부부를 가진 사람들은 선택의 폭이 더 좁은 게 사실이다. 파운데

이션이나 컨실러의 색상 종류가 턱없이 부족한 것은 아직도 많은 뷰티 소비자들의 불만 중 하나이고 밝은 피부 톤에만 어울리는 단일 색상의 반창고 역시 다양성이 한참 부족하다.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인형 제품 역시 백인의 밝은 피부 톤을 닮은 경우가 대부분이고 스킨톤 언더웨어의 기본 옵션은 대부분 연한 베이지색이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 관련 업계는 이러한 고정관념을 탈피하고 소비자가 원하는 다양성을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셀러 브리티 리한나의 메이크업 브랜드로 유명한 '펜티뷰티'를 비롯해 최근 많은 뷰티 브랜드가 적게는 20여 종에서 많게는 100여 종의 색상 옵션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대표적인 반창고 브랜드 '밴드에이드'를 포함한 여러 브랜드가 다양한 피부 톤에 맞는 제품을 선보여 소비자 니즈를 충족시키고 있다. 미국을 대표하는 인형 레이블 '바비' 역시 35종 이상의 피부 톤, 94종 이상의 헤어스타일, 9종 이상 체형의 인형 제품을 통해 다양성과 포괄성을 추구하고 있다. 스포츠패션 업계의 자이언트 기업 '나이키'나 떠오르는 애슬레저 패션 브랜드 '룰루레론' 등은 이슬람교도가 머리카락을 가리기 위해 착용하는 히잡처럼 특수성을 지닌 제품 또한 제공하며 종교와 문화적 다양성을 포용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우리 기업 시사점** = 미국에서는 지난 4월 11일부터 성 중립적 여권 발급이 시작됐다. 이제 여권 발급 신청서의 '성별' 항목에 남성(M)과 여성(F)뿐만 아니라 '불특정(X)'이라는 선택지도 생긴 것이다. 여권 발급 시 선택하는 성별은 다른 신분 증명 서류상의 성별과 반드시 일치할 필요가 없으며 기존 여권의 성별을 변경할 경우에도 더 이상 의료적 증빙 서류가 필요하지 않게 됐다. 또한 작년 6월에는 백악관이 직접 'LGBTQ+프라이드 먼스(Pride Month)'를 선포했고 최근에는 한국의 아이돌 그룹 BTS가 백악관을 방문해 빈아시아인 혐오 범죄 주제에 관해 조 바이든 대통령과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들은 큰 변화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다양성 및 포괄성의 추구하고 관련된 국가적인 관점의 변화이기 때문이다. 이에 힘입어 관련 업계도 포용성을 위한 더 많은 변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남은 숙제는 여전히 많다.

미국에서 비즈니스 컨설팅 업계에 종사하는 C 매니저는 KOTRA 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한때 많은 기업이 환경 영향과 지속가능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실제로는 이렇다 할 행동을 하지 않으면서 표면적으로만 주의를 기울이는 '그린워싱(Green-washing)'이 도마 위에 오른 적이 있다"면서 "요즘은 이와 유사하게 다양성 및 포괄성 추구하고 성소수자 인권 향상을 지지하는 듯 무지개색을 의도적으로 마케팅에 활용하면서 실제로는 관련 노력이나 결과가 없는 '레인보우 워싱(Rainbow-washing)'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관련 기업들은 이런 이슈가 회자되면 오히려 소비자에게 실망감을 주고 좋지 않은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면서 "다만 다양성과 포용성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오히려 일반 대중에게 다소 역차별로 느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로스앤젤레스 무역관



**조종사가 파업해서** 11월 5일 케냐 국영항공 조종사들이 파업에 돌입해 나이로비의 조모 케냐타 국제공항에서 항공기에 탑승하지 못한 승객들이 짐을 들고 대기하고 있다. 케냐 항공 측은 조종사들이 퇴직금 적립제 시행과 밀린 임금 지급을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가 7일 예정된 항공편 약 75%를 취소했으며 매일 수백만 달러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나이로비=AP/뉴시스】

# 건강 챙기는 미국인들... 스포츠용품 시장의 공략 키워드는?

지속 가능한 제품 요구 커져

스마트 스포츠용품 시장 확장 중

팬데믹 기간 중 미국 스포츠용품 업계는 다른 산업과 마찬가지로 소비자들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요구를 반영해 천연 원료를 사용하고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펼쳤다. 이와 더불어 다양한 스마트 스포츠용품 개발도 계속되고 있다.

●확장하는 미 스포츠용품 시장 =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 스포츠 참여율 제고 등으로 성장하던 미국 스포츠용품 시장은 코로나19를 계기로 성장이 가속됐다.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 이 시장은 전년 대비 1.5% 감소했으나 2021년에는 22.6%의 높은 증가율을 바탕으로 171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미국 내 제조보다는 큰 폭의 수입 증가를 바탕으로 하며 제품 수요의 54.5%를 수입에 의존했다. 향후 5년간 미 스포츠용품 시장은 연평균 1.4%씩 성장해 2026년에는 183억 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한편, 미 스포츠용품 수출입 규모는 2020년 다소 위축됐다가 이듬해 크게 회복돼 수출액은 39.1%, 수입액은 50.2% 늘었다. 향후 5년간 수출입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6년에는 수출 17억9100만 달러, 수입 98억1400만 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주요 수출국은 캐나다, 일본, 한국, 영국 등이며 주요 수입국은 중국, 대만, 베트남, 캐나다 등이다.

●지속 가능한 제품의 확대 = 미국 소비자들은 지속 가능성의 가치를 존중하고 이를 고려한 소비를 늘려나가고 있다. 스포츠용품 기업들도 소비자들의 이런 요구에 부응해 지속 가능한 재료, 동물성 재료 대체 물질 활용 등 환경 친화적 제품을 속속 선보이고 있다.

에코스포츠는 식물성 가죽을 사용해 지속 가능하면서도 고품질의 스포츠용품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2021년 설립됐다. 생분해되고 재활용되는 식물성 가죽인 TPU로 만든 축구공, 야구공, 농구공, 배구공, 야구 글러브 등을 생산하고 있다. 회사에 따르면 TPU 제품은 시중에 나와 있는 가죽을 사용하지 않은 저렴한 장비는 물론 가죽 소재 기존 제품 못지않게 내구성이 뛰어나다. 또한 제품 포장에는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수익의 10%는 나무를 심는 데 기부하고 있다. 미 프로 풋볼(NFL)의 미식축구공을 만드는 데 매년 3만5000마리의 소가죽이 사용되는데 식물성 가죽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런가 하면 엘비스골프의 '에코바이오볼'은 생분해성 일회용 골프공이다. 공의 천연 외피는 48시간 안에 분해되며 공 중심에는 지역 해양생물의 먹이가 될 수 있는 무독성 사료를 포함하고 있다. 에코바이오볼은 해양 동식물에 100% 안전하며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아 유람선, 해변, 해안 호텔 및 리조트, 강, 호수 등 기타 해양 환경에서 골프 연습을 하기에 적합하다. 골프를 즐기면서도 해양 환경의 지속 가능성과 생물 다양성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가격은 100개에 182달러 수준이다.

새너블은 완전 비건을 지향하는 기업으로 복싱과 주짓수 글러브와 기타 액세서리를 생산한다. 일반적으로 복싱 장갑은 동물성 가죽으로 만들지만 새너블은 대부분의 장갑



**비가 너무 와** 11월 7일 휠체어를 탄 남성이 폭우로 물에 잠긴 콜롬비아 북부 카르타헤나의 한 거리를 지나고 있다. 최근 콜롬비아에서는 폭우로 인한 산사태와 홍수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카르타헤나=EPA/연합뉴스]

을 합성가죽으로 만든다. 또한 생분해성 식물성 가죽인 선인장이나 포도를 원료로 한 가죽 제품도 생산 중이다.

스포츠용품 기업 와보다는 친환경 제품군인 '리와일드 에코프렌들리 시리즈'를 통해 축구공, 배구공 등을 천연고무와 황마로 제조하고 있다. 가격은 14.99~19.99달러.

●활기 띠는 스마트 스포츠용품 개발 = 스마트 스포츠용품의 종류도 다양해지고 있다. 파이트캠프의 스마트 복싱용품은 펀칭을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트랙커, 글러브와 복싱 백 등을 갖추고 있는데, 트랙커만 구입할 수도 있다(99달러). 또한 다양한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제공해 사용자가 지루하지 않게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도록 돕는데, 프로그램 이용 요금은 한 달에 39달러다.

다이아몬드키네틱스는 스마트 야구공과 스마트 소프트볼, 스마트 배트 등을 판매한다. 스마트 야구공과 함께 사용하는 피치 트랙커는 투수가 던지는 모션을 평가, 분석, 저장해 사용자의 단점을 확인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돕는다. 스마트 배트와 함께 사용하는 스윙 트랙커의 경우 타격의 속도, 각도, 거리 등 타자의 타격을 분석하며 과거 타격이나 친구의 타격과 비교할 수 있다. 또한 앱을 통해 전문 코치의 피드백, 개선점 등의 조언을 얻을 수도 있다.

●늘어나는 유소년의 스포츠 참가 = 미 스포츠·피트니스산업협회(SFIA)에 따르면 2020년 6~12세 미국 유소년의 스포츠 참가율은 76.1%, 13~17세는 73.4%였다. 팬데믹의 영향에도 전년에 비해 참가율이 상승했으나 팀 스포츠보다는 개인 스포츠 참여율이 상대적으로 크게 높아졌다.

가장 많이 참여한 스포츠로는 6~12세 유소년의 경우 자전거(18.2%), 농구(14.8%), 야구(12.2%), 축구(6.2%), 테니스(5.9%) 순이었고 13~17세는 자전거(21.8%), 농구(16.9%), 야구(8.7%), 테니스(7.9%), 골프(7.2%) 순이었다. 성별에 따라서는 여성보다 남성이, 가계 소득별로는 고소득 가정 유소년의 참여율이 높았다. 특히 팬데믹 기간

중 참여율이 상승한 종목은 골프, 테니스처럼 타인과의 신체 접촉이 적은 스포츠였다.

유타대학의 조사에 따르면 가구별 아동 1인당 스포츠용품 구매에 소비된 연간 금액은 평균 144달러였다. 종목별로는 스키·스노우보드가 1174달러로 가장 많았고 필드하키(521달러), 자전거(504달러), 아이스하키(389달러), 골프(364달러)가 뒤를 이었다. 참여율이 높은 농구, 야구, 축구, 테니스는 각각 74달러, 121달러, 125달러, 122달러로 나타났다.

●우리 기업 시사점 = 미 보건복지부(DHHS)에 따르면 2019년 기준 미국 내 6~17세 유소년 중 56.1%가 팀 스포츠에 참가하고 있거나 방과 후 스포츠 레슨을 받고 있다. DHHS는 2030년까지 유소년의 스포츠 참여율을 63.3%까지 높이는 것을 목표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스포츠·피트니스영양위원회(PCSFN)는 모든 미국인의 건강한 식습관과 신체활동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연방 자문 위원회인데, 바이든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PCSFN의 활동을 2023년 9월 30일까지 연장했다. 또한 '미국 유소년 스포츠 전략(NYSS)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NYSS는 유소년 스포츠 참여를 확대하고 활동적인 놀이를 포함한 규칙적인 신체활동을 장려하며 모든 미국인의 영양상태 증진을 목적으로 DHHS가 개발했다.

국가적으로 유소년 스포츠를 장려하고 학교의 스포츠 클럽 활동이 활발한 가운데 미국 내 유소년 스포츠 참여 인구는 점차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우리 기업들은 연령이나 성별 등에 따른 선호 스포츠 종목, 필수 스포츠용품을 파악해 이에 맞는 마케팅과 판매 방안을 세울 필요가 있다. 또한 유소년 스포츠용품의 경우 학기가 시작하기 전인 여름 판매량이 많은 만큼 이 기간 마케팅을 활성화해야 한다. KOTRA 무역관과 인터뷰한 스포츠용품 판매점 관계자는 "신학기 준비하는 기간 중 유소년 스포츠용품 판매가 활기를 띠는데, 전년에 비해 축구, 농

구 등 팀 스포츠용품 판매 증가가 눈에 띈다"고 전했다.

KOTRA 무역관은 "경쟁이 치열한 미 스포츠용품 시장에서 기업들은 맞춤형 골프채와 같은 특화된 고품질 제품을 통해 틈새시장을 개척하고 있다"면서 "외국 업체와의 가격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소매업체에 직접 판매하는 경향도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 기업들은 친환경 제품이나 IT와 결합한 스마트 스포츠용품으로 차별화하면서 소비자 요구에 부응하는 방안을 고려할 만하다"면서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는 포장에서부터 친환경 원료 제품을 바탕으로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마케팅을 펼친다면 환경에 관심이 많은 미국 내 MZ세대에게 좋은 반응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맬러스 무역관

## '반도체 규제 동참' 압박나선 미국

한국무역협회 도쿄 지부는 일본 언론보도를 인용해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일본과 유럽 등 동맹국들에게 미국과 같은 수준의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규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미국의 요구에 따라 내부 조율에 나섰으며 요청 사항 가운데 어떤 부분을 적용할지 논의하면서 한국과 유럽연합(EU)의 동향을 살펴보고 있다.

지난 10월 7일 미 상무부는 슈퍼컴퓨터 등 첨단 기술과 관련해 중국과의 거래를 폭넓게 제한하는 조치를 발표하고 수출관리법을 개정해 반도체뿐만 아니라 제조장치와 설계 소프트웨어(SW), 인력도 대상에 포함해 허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미 오바마 행정부에서 수출 관리를 담당했던 케빈 울프 전 상무부 차관보는 "미-일 양국이 반도체를 둘러싸고 중국에 대항하면 협력관계가 한층 심화돼 첨단 기술의 공동 개발과 생산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윤성 기자

# 기후 대응에 지갑 연 선진국... “지원 말고 보상하라”는 개도국

COP27 회의서 ‘뭉치돈’ 지원 약속 아프리카 “에너지 식민주의” 반발 산유국은 “석유 여전히 필요” 고수

이집트에서 개막한 제27차 유엔기후 변화협약 당사국회의(COP27)에서 선진국들이 기후 대응에 지갑을 열겠다는 약속을 속속 꺼내들었다. 이러한 움직임은 선진국이 수백 년간 화석 연료를 태워 산업 발전을 이루면서 현재 기후 위기를 부른 책임이 있다는 ‘손실과 피해(loss and damage)’ 의제가 이번 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된 것과 맞물려 있다. 하지만 지구 반대편 아프리카와 개발도상국은 “선진국은 돕겠다는 자세가 아니라 책임지는 자세를 져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여전히 좁혀지지 않는 간극을 드러냈다.

●선진국 속속 ‘뭉치돈’ 지원 약속 = 외신에 따르면 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 유럽연합(EU) 등은 11월 7일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85억 달러(약 11조8000억 원)를 지원하는 ‘공정한 에너지 전환(Just Energy Transition)’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남아공 국가들이 석탄 의존도를 줄이고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하도록 지원해 탄소 배출을 절감한다는 취지다.

선진국들이이같이 지갑을 열겠다는 약속에 도출한 것은 이번 COP27 회의에서 나온 주요한 성과 중 하나로 평가된다. 또한 화석 연료 중에서도 탄소 배출 주범으로 석탄을 다루는 데 진전을 이룬 것으로 <블룸버그>는 진단했다.

독일은 자체적으로 1억7000만 유로(2360억 원)를 기후 변화 취약 국가에 지원하는 계획인 ‘글로벌 보호(Global Shield)’ 구상을 내놨다. 이번 COP27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주요 7개국(G7)으로서 우리는 취약 국가들과 함께 기후 위기에 대응할 글로벌 보호막을 함께 조성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구상은 올해 초 발표된 것으로, 극단적 기후 재난 현상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경제 회복 자금을 투입하는 게 골자다.

리시 수낙 영국 총리도 2025년까지 개발도상국의 친환경 성장을 지원하는 계획으로, 기존보다 세배 증액한 17억 달러(2조3500억 원)를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수낙 총리는 영국이 이미 케냐, 이집트를 포함한 국가에 친환경 계획으로 6500만 파운드(1040억 원)를 투자 중이라고도 덧붙였다. 벨기에도 아프리카 모잠비크에 2023~2028년 기후 대응 자금으로 250만 유로(34억7000만 원)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프리카 “우리가 가스 충전소냐”... 산유국 “석유 여전히 필요” = 선진국의 이 같은 움직임은 이번 COP27에서 처음으로 ‘손실과 피해(loss and damage)’가 의제로 상정된 데 따른 것이다. 이 의제는 기후 위기로 피해를 겪는 개발도상국에 선진국이 보상해 준다는 개념이다.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이 수백 년에 걸쳐 석탄, 석유, 가스 등 화석 연료를 태운 산업 발전으로 현재 기후 위기를 불렀다는 점에서 피해 국가에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게 개도국 주장이다. 반면 선진국은 ‘보상 책임’을 인정하는 데 선을 긋는 입장이다. 실제로 선진국은 그간 개도국의 기후 위기 대응을 돕겠다는 명목으로는 지갑을 열어 왔지만 이를 ‘보상 책임’으로 규정하는 것에는 부정적이다.

올여름 홍수로 1700명이 숨지고 국토의 3분의 1이 물에 잠긴 파키스탄이 이번 ‘손실과 피해’ 의제의 대표적 사례라고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적시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만약 누군가 ‘손실과 피해’에 의구심을 품었다면 파키스탄에 가보라”면서 “거기에 손실이 있다”고 말했다.

아프리카도 선진국에 불만을 드러냈다. 현지 환경 운동가인 모하메드 아도는 기자회견에서 유럽연합(EU)이 아프리카 대륙을 ‘가스 충전소’로 삼고 있다고 비난했다. 독일을 포함한 EU 국가가 러시아의 가스 공급 차단에 직면해 알제리, 세네갈 같은 아프리카 국가를 가스 공급처로 확보하려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그는 유럽 국가가 재생 에너지 같은 친환경 대안을 찾지 않고 가스 확보에 몰두하고 있다면서 특히 숄츠 총리를 겨냥해 “우리는 에너지 식민주의를 허용하지

않겠다”고 맞섰다.

화석 연료 시대의 종언에 정면으로 반발하는 국가도 적지 않다. 석유수출국기구(OPEC) 회원국이자 원유, 가스 부국인 아랍에미리트(UAE)는 “우리는 책임 있는 에너지 공급국”이라며 “세계가 원유, 가스를 필요로 하는 한 이 역할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UAE는 내년 COP 회의 주최국이기도 하다.

●개도국 기후 위기 대응 비용 2030년엔 3000조 원 넘을 것 = 이런 가운데 온난화의 피해자인 개발도상국의 기후 변화 대응 비용이 2030년에는 연간 3000조 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올해 기후 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 개최국인 이집트와 지난해 총회(COP26) 개최국인 영국 정부의뢰로 작성된 빈곤국의 기후 대응 비용 추이 분석 보고서가 최근 공개됐다. 보고서는 전 세계 개도국이 화석 연료를 퇴출하고 극단적 기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투자 규모가 중국을 제외해도 2025년 1조 달러(약 1388조 원), 2030년에는 2조4000억 달러(약 3330조 원)가 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에 필요한 자금의 절반가량은 현지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세계은행(WB)과 다국적 개발 은행 등이 외부자금을 조달해 나머지 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핵심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이번 보고서의 수석 저자인 기후경제학자 니컬러스 스티븐은 “부유한 국가들은 신흥시장과 개도국의 기후 대응에 대한 투자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것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세계가 직면한 기후 변화는 수백 년간 선진국이 배출한 온실가스의 영향이 크다는 점을 짚으면서 “이는 정의의 문제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는 향후 10년간 진행될 에너지 기반시설 투자와 소비 증가가 개도국에서 집중적으로 이뤄질 것인 만큼, 개도국이 화석 연료 의존에서 탈피하도록 돕지 않는다면 선진국과 개도국을 막론하고 수많은 생명이 위협받을 것이란 경고도 담겼다. 반면, 적절한 규모의 투자가 이뤄진다면 극단적 기후 변화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개도국의 경

제성장을 도와 수십억 명을 빈곤에서 탈출시킬 수 있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COP27에서는 처음으로 ‘손실과 피해’를 공식 의제로 상정해 선진국이 기후 변화 위기로 피해를 겪고 있는 개발도상국에 보상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그러나 의제 채택 과정부터 개도국과 선진국 간 줄다리기로 총회 개최 자체가 지연되면서 향후 협상 과정에서 엄청난 진통을 예고했다.

이번 기후 정상회의에 참석한 개발도상국 정상들은 피해 보상 방안 등에 대해 본격적으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기후 변화가 촉발한 해수면 상승으로 고전 중인 카리브해 섬나라 바베이도스의 미아 모틀리 총리는 기후 위기를 겪는 도서국에 세계은행(WB)과 국제통화기금(IMF)이 더 많은 자금 지원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대출 한도를 수십억에서 수조 달러로 늘리기를 원한다. 우리에게 시간이 없다”고 호소했다.

윌리엄 루토 케냐 대통령은 “기후 변화 총회에서 장기간의 토의를 진행하며 기후 변화 대응 방안 실행을 지연시키는 것이 잔인하고 부당하다”면서 개방적인 결과를 지향하고 절차를 중시하는 토론에서 이제 벗어나자고 제안했다.

마키 살 세네갈 대통령은 “아프리카의 온실가스 배출 규모는 전 세계 4%에 불과하다”며 “녹색 전환에 찬성하지만, 이는 우리의 개발을 저해한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선진국들은 2009년 열린 기후 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15)에서 2020년까지 매년 1000억 달러(약 138조 원)를 개도국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 변화 대응에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으나 목표치를 채우지 못한 상황이다. 서울=연합뉴스

## 중국 젊은이들 폴더블폰 선호

경제 침체 영향으로 중국의 스마트폰 판매가 감소하고 있지만 폴더블폰 판매량은 급증하며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고 <중국중앙TV(CCTV)>가 최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국의 스마트폰 판매량은 1억4000만 대로, 작년 동기 대비 14.4% 감소했다. 3분기에도 7113만 대가 팔리는 데 그쳐 작년 동기보다 11.9% 줄었다.

경제 침체에 따른 소비 감소로 전체 스마트폰 판매가 부진했지만, 폴더블폰 판매는 크게 늘었다. 올해 상반기 중국의 폴더블폰 판매량은 110만 대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70% 증가했다. 이어 3분기 판매량은 100만 대를 넘어 작년 동기보다 246% 급증하며 역대 분기 최대 판매량을 기록했다.

중국 전자업계는 스마트폰 시장의 침체 속에 폴더블폰 판매가 호조를 보이는 이유를 가격 인하로 구매 부담이 줄었고, 새로운 경험을 원하는 젊은층이 선호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폴더블폰이 일반 스마트폰과 차별되는 독립적인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휴대폰 업체들과 쇼핑몰, 전자상거래 플랫폼들은 판매 부진에서 벗어나기 위해 중국 최대 쇼핑축제인 ‘쌍십일 축제’의 판매 가격을 경쟁적으로 내리고, 다양한 할인 혜택을 내걸고 있다. 쌍십일 축제는 매년 11월 11일 열렸으나 2020년부터 11월 1~3일과 11월 11일 두 차례 열린다. 이용서 기자



COP27 행사장서 휘날리는 유엔 회원국 국기들 11월 7일 이집트 샤름 엘 셰이크에서 열린 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회의(COP27) 행사장 밖에서 유엔 회원국 국기들이 휘날리고 있다. 이날 100여 개국 정상들이 모여 기후 위기 대응책에 대해 논의했지만, 세계 10대 온실가스 배출국 가운데 9개국 정상이 행사에 불참하거나 뒤늦게 참가해 개발도상국 지원문제 논의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샤름 엘 셰이크=AFP/연합뉴스]

# 당뇨병 환자 급증하는 방글라데시, 혈당 측정기 수요 증가

## 사망자의 3%가 당뇨병 환자

세계에서 가장 못사는 나라 중 하나로 꼽히는 방글라데시에서 당뇨병 환자가 급증하면서 자가진단용 혈당 측정기 수요가 커지고 있다.

국제당뇨연합(IDF)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방글라데시의 당뇨 환자는 1310만 명으로 세계 8위였고 2045년에는 2230만 명에 달할 전망이다. 하지만 당뇨 환자 1인당 의료비 지출은 연간 76.5달러에 불과하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방글라데시 사망자 중 약 3%가 당뇨병 환자다.

당뇨병은 뇌졸중, 심장마비, 만성 신부전, 시력 손상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질병으로, 방글라데시에서도 인구 증가, 도시화, 바쁜 일상,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 섭취, 비만, 운동

부족 등으로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 혈당 수치 관리를 통해 사망 위험을 줄일 수 있고 응급조치를 할 수 있어 휴대가 가능한 자가 모니터링 혈당 측정기(SMBGM)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방글라데시 SMBGM 시장에는 기본 모델부터 고급 모델까지 다양한 제품이 나와 있으며 가격 위주 시장이다. 가장 인기 있는 브랜드는 스위스 로세홀딩스의 '아큐-체크'이며 수입은 인도와 미국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방글라데시는 SMBGM 수요 전망을 수입하며 주요 수입 상대국은 싱가포르, 중국, 미국, 독일, 인도 등이다. 방글라데시 통계청과 중앙은행에 따르면 2019~2020회계연도의 SMBGM 수입액은 4121만 달러이며 소모품인 스트립은 4867만 달러를 기록했다. 한국

으로부터는 128만 달러(스트립 138만 달러)로 아직 규모가 작은 편이다.

방글라데시에서 SMBGM을 판매하려면 제품을 등록하고 의약품 관리청(DGDA)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방글라데시 투자개발청(BIDA)에 따르면 방글라데시 정부는 해외 의료기기 업체 유치를 통해 현지 생산을 촉진하고 있다. 의료기기 부문 투자 진출 시 원부자재 수입 관련 양허관세 및 현금 수출 인센티브 제공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반면 관세 부과 체계가 복잡해 SMBGM을 수입하려면 관세, 부가가치세, 사전세, 사전소득세 등을 합쳐 모두 26.2%(스트립 31%)의 세금을 내야 한다.

현지 정부는 제7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2015년 7월~2020년 6월)을 통해 제조업

비중을 늘리고 서비스업과 농업의 비중을 줄인다는 목표를 설정한 바 있으며 제8차 5개년 계획(2020년 7월~2025년 6월)에서도 같은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강력한 현지 제조업 육성 의지에 따라 의료기기의 생산 현지화도 가속화될 전망이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방글라데시의 의료기기 및 관련 소모품 시장은 연간 4억4200만 달러이고 연평균 13%의 성장률을 기록 중이다.

현지 시장 전문가는 "방글라데시의 한국산 SMBGM 수입 규모는 아직 작은 편이지만 한국 의료기기의 인지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어 향후 시장 점유율 확대가 기대된다"면서 "장기적인 진출을 위해서는 유력 현지 에이전트와의 협력이 필수"라고 밝혔다.

다카 무역관

# 중, '제로 코로나' 출구전략 검토 중... 느리게 진행

## "완전 정상화는 내년 말까지 가능"

중국 지도부가 코로나19 차단을 위한 '제로 코로나' 정책에서 벗어나 리오프닝(경제 활동 재개)을 향한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최근 보도했다. 다만 중국의 이러한 구상은 구체적인 시간표 없이 느린 속도로 진행될 것이라고 이 사안을 잘 아는 소식통들은 밝혔다.

중국의 고위 관리들은 '무(無)관용 방역 정책'에 따른 경제적 비용을 우려하고 있으나, 동시에 리오프닝이 공중 보건과 공산당 지지에 미칠 악영향도 고민 중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따라서 팬데믹(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이전과 같은 정상적인 수준의 경제 활동은 내년 말에 가까운 시기에나 가능할 정도로 장기적인 리오프닝 계획을 구상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코로나19에 관한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해제할 경우 코로나19를 A등급 질병에서 B등급 질병으로 한 단계 낮춤으로써 방역 수위를 조절한다는 계획을 구상하고 있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 진행할 경우 팬데믹 이전 수준의 활동 재개까지는 1년간 걸릴 것이라고 소식통들은 전망했다.

새로운 변이가 더는 위험하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데다 겨울이 다가오는 가운데 아직 공중보건 대응 체계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도 변수로 꼽힌다. 곧바로 방역 규제를 풀었다가 사망률과

입원율이 올라갈 경우 공산당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것을 염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신문은 분석했다.

또 중국은 한국, 일본, 홍콩 등 비슷한 문화권 국가와 지역들의 사망률 추이와 시민들의 반응을 면밀히 관찰하면서 대응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소식통들은 밝혔다. 이 사안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WSJ>에 "중국에서의

리오프닝은 질서정연한 방식으로 이뤄질 것이며, 지역에 따라 점진적으로 시작될 것"이라며 "서구에서의 방식과는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글로벌 금융시장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3연임 확정 후 코로나19 규제 완화를 기대했으나, 지난 11월 5일 중국 보건당국이 제로 코로나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힌 후 실망감을 보이고 있다. 다만 중국은 해외 입국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등 일부 물러서는 모습도 보인다. 해외 입국자의 격리 기간은 현행 '7+3 격리(호텔 7일, 자가 3일)'에서 총 7일로 줄어든 가능성이 크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추가적인 방역 규제 완화는 고령층 백신 접종률 제고와 먹는(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 보급에 달려 있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제로 코로나' 실패하나** 11월 8일 중국 베이징의 코로나19 검사소에서 검사를 받으려는 주민들이 줄을 서서 대기하고 있다. 중국의 '제로 코로나' 초강력 방역에도 코로나19 신규 감염자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베이징=AP/뉴시스】

# 중국과 호주의 갑작스런 화해 모드... 양국 관계 개선 한목소리

최근 수년간 악화 일로를 걷고 있는 중국과 호주의 외교장관이 전화 통화를 통해 양국 관계를 개선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11월 8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왕 부장은 이날 페니 워 호주 외교장관과의 통화에서 "중국과 호주의 공동이익은 이전보다 훨씬 크다"며 "양국의 신뢰재건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양국 관계 개선은 쌍방의 근본이익에 부합하며 양국 인민과 국제사회의 기대에도 부합한다"며 "상호존중의

정신을 견지하고 구동존이(求同存異·일치를 추구하되 서로 불일치하는 영역은 그대로 두는 것)의 태도에 따라 호혜상생의 목표를 향해 노력해 양국 관계가 다시 정상 궤도에 오르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왕 부장은 "이 과정에서 각자의 합리적인 우려를 점차 해결하고 현재의 글로벌 도전에 대처하기 위해 함께 적극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왕 장관도 "최근 호주와 중국은 효과적인 소통과 접촉을 유지하고 있다"며 "끊임없는 노력

을 통해 양국 관계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고 화답했다. 이어 "호주는 '하나의 중국' 정책을 계속 견지할 것이고 상호존중의 기초에서 중국과 더욱 안정적이고 호혜호리(互惠互利)적인 관계를 발전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양호한 양국 관계는 각자의 국가 이익을 수호하는 것과 모순되지 않고, 호주는 현재 존재하는 이견을 확대할 의사가 없다"며 "책임 있는 방식으로 문제를 타당하게 처리하고 양국 관계를 개선하고 강화하는 방향으로

계속 노력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호주는 2018년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요청에 발맞춰 5G 통신망 사업에서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의 참여를 배제했으며, 호주의 최대 무역 상대국인 중국도 호주산 와인과 소고기, 보리, 석탄 등 10여개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보복 조치에 나서면서 양국 관계는 급속히 악화했다. 또 호주가 오커스(AUKUS·미국·영국·호주 안보 동맹), 쿼드(Quad·미국·일본·호주·인도의 안보 협의체) 등 미국의 대중 포위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갈등이 심화했다.

베이징=연합뉴스

# 데스크의 창

# “중국의 대외 개방은 경제성장을 위한 필연적 선택”

KOTRA 베이징 무역관은 최근 '제20차 당대회 이후 중국경제 전망'을 주제로 웹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는 중국 사회과학원 거시경제연구소의 탕 뤼뤼 부주임과 귀타이쥘안 증권연구소의 황웨이즈 애널리스트가 연사로 나서 중국 거시경제 현황과 20차 당대회 이후의 정책 방향, 주요 산업을 전망하고 한중 유망 협력 분야에 관해서도 의견을 밝혔습니다.

먼저 중국 거시경제 현황과 20차 당대회 보고서 해석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중국 사회과학원의 탕뤼뤼 부주임은 “안팎의 다양한 불확실 요인이 중국의 경기하방 압력을 증대시키고 있다”면서 중국 경제성장 저하의 직접적 요인으로 부동산 투자 둔화와 소비 위축을 꼽았습니다.

탕뤼뤼 부주임의 발표에 따르면 중국의 부동산 투자 증가율은 코로나19 이전부터 한 자릿수로 가라앉았습니다. 2020년 코로나19의 충격으로 마이너스 구간으로 떨어졌다가 2021년 경기 회복세를 타고 큰 폭으로 반등했는데, 이는 2020년의 기저 효과가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올해 중국의 부동산 투자는 다시 역성장하는 것은 물론, 둔화 폭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의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축인 소비도 코로나 팬데믹의 여파로 급격하게 위축되고 있습니다. 2분기 들어 감염병의 재확산 및 봉쇄로 급랭한 소비는 봉쇄 완화 이후에도 회복세가 미진합니다. 8월 누계 기준 전체 소매판매는 코로나19 이전의 85% 수준에 그쳤고 이 중 상품 소비는 87%, 외식 소비는 67%에 불과합니다.

탕 부주임은 “위험요인이 산재하지만 수출, 외국인직접투자(FDI), 제조업과 인프라 투자가 중국 경기의 하방을 방어하는 양상”이라며 “수출 증가율이 둔화하고 있지만 지난 10년의 증가세와 작년의 역기지 효과를 감안하면 그나마 호조라고 평가할 만하다”고 분석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FDI의 고성장세도 주목할 만합니다. 9월 중국의 FDI는 전년 동기 대비 15.6% 증가한 1553억 달러였습니다. 한국, 유럽 등의 중국 투자는 여전히 활발합니다.

후퇴하는 부동산 투자와 대조적으로 중국의 제조업 투자와 인프라 투자도 10%대의 신장세를 유지하며 경기 하방을 방어하고 있습니다. 과거 20%대의 고성장세와 비교하면 둔화했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올해 들어 경기 회복세가 지연되는

상황에서 두 자릿수 증가세를 유지하는 것은 중국 정부가 경기부양 강도를 높인 결과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탕뤼뤼 부주임은 “중국 경제는 지금 수요 위축, 공급 충격, 기대 약화 등 3중 압박 속에서 3대 변화를 겪고 있는데, 성장 속도 둔화, 구조조정, 빈번한 외부 충격 등이 그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중국 정부는 연말까지 재정정책을 통한 부양 강도를 높이고, 특히 인프라 투자를 확대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이어 중국 산업구조 변화 및 한중 유망 협력 분야에 관해 발표한 귀타이쥘안 증권 애널리스트는 에너지, 방위산업, 반도체, 신소재, 첨단 설비, 차세대 정보기술 등을 유망 산업으로 꼽았습니다.

황 애널리스트는 그러면서 “중국이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을 추진하는 가운데 한중 양국 기업은 자유무역협정(FTA),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양자 및 다자간 무역협정을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20차 당대회를 통해 다원적이고 안정적인 글로벌 경제 구도와 경제무역 관계 유지를 강조한 만큼 양국 기업은 반도체와 같은 공

급망의 상호 보완성이 높은 분야, 신에너지와 같은 신산업 분야에서 비즈니스 협력을 모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두 연사는 발표 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서 내년 중국의 경제성장률을 4.5% 수준으로 전망했습니다. 또한 중국 정부의 제로코로나 정책 완화 시기에 대해서는 2023년 양회를 계기로 변화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미국의 중국에 대한 반도체 제재의 영향을 묻는 질문에는 “중국의 반도체 자국 화물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중국은 기술력 강화 및 생태계 구축 지원,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한 핵심 기술력 강화에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향후 미중 관계에 대해서는 “양국 관계는 경쟁과 협력이 공존하는 관계이며 미중 갈등은 구조적 갈등”이라며 “중국의 굴기가 외부에 충격을 가할 수 있기 때문에 갈등은 해소되기 힘들다”고 진단했습니다. 중국 정부의 대외 개방 확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에 대해서는 “대의 개방은 중국 정부가 경제성장을 위해 추진하는 필연적 선택”이라며 “외부의 회의적인 시각은 이데올로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일본, '초저금리 출구전략 검토' 목소리 나오기 시작했다

세계적 기준금리 인상 흐름에 맞서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BOJ)이 초저금리 기조를 고수하고 있지만, 최근 일본은행 내부에서도 출구전략을 검토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10월 27~28일 열린 BOJ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참가자들은 초저금리 정책의 부작용과 향후 출구전략의 영향을 검토할 필요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회의에서는 단기금리를 -0.1%로 동결하고, 10년물 국채금리 상단을 0.25% 정도로 유지하기 위해 국채를 무제한 매입하는 강력한 금융완화 기조 유지를 결정한 바 있다. 구로다 하루히코

BOJ 총재는 당시 기자회견에서 “2% 물가 상승이라는 목표 실현을 향해 필요한 시점까지 금융완화를 지속하겠다”며 “필요하다면 주저하지 않고 추가 금융완화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11월 8일 공개된 회의 의사록 요약본에 따르면 참석 위원 9명 가운데 다수는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에 따른 가계의 생활비 압박을 임금 인상분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현재의 초저금리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최근 비용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 신호가 커지는 데 주목하는 의견도 나왔다. 한 위원은 “인플레이션의 지나치게

과도한 상승(오버슈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또 “향후 (초저금리에서 벗어나는) 출구전략이 어떻게 시장에 영향을 미칠지, 또 시장참여자들이 그에 대해 잘 대비해 있을지 검토를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다른 위원은 지금 당장 통화정책을 수정할 필요는 없다면서도, BOJ가 통화완화 정책의 장기화에 따른 부작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로이터〉는 이에 대해 초저금리 정책 고수를 강조하는 구로다 총재와 초저금리 출구전략 논의에 개방적인 다른 위원들 간의 견해차를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평가했다. 미국과 유럽 등 주요 선진국들이 인플레이

션에 대응해 빠르게 기준금리를 올리는 상황에서도 일본은행은 경기 회복을 뒷받침한다며 초저금리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일본의 9월 근원 소비자물가는 최근 8년 새 최고인 3.0%의 상승률을 나타냈으며, 달러 대비 엔화 가치는 올해 들어 26% 넘게 급락하면서 수입 물가 상승을 부채질하고 있다.

〈마이니치신문〉의 지난달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55%가 BOJ의 초저금리 정책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히는 등 여론도 악화하는 가운데, 시장 일각에서는 구로다 총재가 퇴임하는 내년 4월 이후 통화정책 변화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한국무역신문은 중소 수출업체들의 비즈니스를 지원하기 위해 거래알선 코너를 신설했습니다. 아래 내용은 한국무역협회 플랫폼 마케팅실 CBT마케팅센터에서 제공한 것으로 한국무역협회 거래알선 사이트(kr.tradeKorea.com)에 접속하시면 보다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해외 바이어 인콰이어리	국 가 미국 Am社	품 목 Iron Ore Concentrates
	품 목 Used Rail	
	국 가 인도 Bud社	품 목 Hair accessories, Jewelry
	국 가 중국 Hon社	

### 한국무역협회-하나은행 외환수수료 우대서비스



한국무역협회 tradeKorea.com과 하나은행은 날로 급증하고 있는 온라인 무역거래에 대한 수출입금융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수출입계약 및 국내업체간 거래에 대해 아래와 같이 수수료 우대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문의 한국무역협회 온라인 마케팅실 02-6000-4420

#### ■ 서비스 소개

- 우대 대상거래 : 수출입 계약 및 내국신용장에 의한 국내업체간 외환결제에 한함
- 이용절차
  - ① tradeKorea.com 회원가입 또는 로그인 → ② 신청서 작성 → ③ 신청결과에서 현재 상황 확인 → ④ 확인서 발급 확인 시 출력 후 하나은행 방문

#### ■ 우대내용

서비스 문의 : 하나은행 1544-3000, 3500

구분	통상 수수료율	우대 기준율
당발송금 수수료	송금금액 구간 별 5,000원~25,000원	건당 50%~80% 할인
타발송금 수수료	건당 10,000원	건당 50%~80% 할인
신용장통지 수수료	건당 20,000원	건당 50%~80% 할인
매입/추심 수수료	건당 20,000원	건당 30~50% 할인
신용장발행 수수료*	신용등급 별 발행금액의 0.8~1.4%	건당 0.4%P 감면
신용장인수 수수료*	신용등급 별 발행금액의 1.4~2.0%	건당 0.8%P 감면

\* 기업의 당행신용등급에 따라 적용요율과 우대율이 상이할 수 있음.

전세계 무역인의 온라인 원스톱 거래 네트워크

**tradeKorea.com**

한국무역협회

**ksure** 한국무역보험공사  
KOREA TRADE INSURANCE CORPORATION

# 수출을 올리다

대한민국 수출의 고공행진,  
**ksure** 한국무역보험공사가 함께 합니다.



Global Language

비즈니스 베트남어

택시(112)

하루 10분 큰 소리로 말해 보세요.

공항에서 호텔까지 얼마나 걸려요?
Từ sân bay đến khách sạn mất bao lâu?
뜨 션 바이 덴 카익 산 먼 바오 라우

여기서 공항까지 얼마나 걸려요?
Từ đây đến sân bay mất bao lâu?
뜨 데이 덴 션 바이 먼 바오 라우

요금은 얼마예요?
Tiền cước là bao nhiêu?
띠엔 끄억 라 바오 니에우

기본요금은 얼마예요?
Giá cước cơ bản là bao nhiêu?
자 끄억 꺼 반 라 바오 니에우

킹덤호텔까지 요금은 얼마예요?
Giá cước đến khách sạn Kingdom là bao nhiêu?
자 끄억 덴 카익 산 킹덤 라 바오 니에우

ECK교육(www.eckedu.com) 제공

아랍어

A: لو سمحت، هل توجد محطة المترو قريبة من هنا؟

[라우 싸마르트, 할 투-자드 마합따를 메트로 까리-바 민 후나?]
실례합니다. 이곳에서 가까운 지하철역이 있습니까?

B: نعم، اذهب إلى اليسار. هي قريبة جدا.

[나암, 이드합 일라 야싸-르. 히야 까리-바 짓단]
네, 왼쪽으로 가세요. 매우 가깝습니다.

A: ابارك الله فيك.

[바-라크 알라후 파-크]
고맙습니다.

B: أهلا وسهلا.

[아흘란 와 싸흘란]
천만에요.



애슐리의 Topic English

#116 인터뷰(6)

안녕하세요, 여러분! 스피킹 전문 강사 애슐리입니다.
지난호에 이어 오늘은 인터뷰 6회째로, 이력서 관련입니다.

[Today's CHIT CHAT]

I've looked over~
~을 검토했습니다.

실제 대면 인터뷰를 하게 되면 (요새는 비대면 인터뷰도 많지만) 면접관이 주로 처음에 묻는
질문 중의 cliché(상투적)인 질문은 지원자의 이력서에 관한 것입니다.
'검토해보고 확인해봤더니 어떠하더라'라는 부분을 중심으로 지원자에게 여러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더 이상 영어 면접에서 두려워하지 않기 위하여 어떤 표현을 필수적으로
학습하는 것이 좋을까요?

I've looked over your resume and cover letter.
저는 당신의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검토했습니다.
I've looked over your final report.
저는 당신의 최종 보고서를 검토했습니다.

It made me~
저를 ~하게 만들었어요.

두 번째 표현은 나의 지원 동기를 표현할 때 요긴하게 활용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사실 지원
동기뿐만 아니라 어떤 일의 결과로 내가 어떻게 느꼈는지의 현재의 감정 상태 또한 전달할 수
있으니 일석이조의 표현이죠!

It made me apply for this position.
그래서 이 자리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It made me excited when the results came out.
결과가 나왔을 때 저는 흥분했어요.

[Today's PRACTICE]

Let's fill in the blank using the expressions you learned from Ashley.

1) I've \_\_\_\_\_ the report and I can't find any mistakes.
보고서를 살펴보니 틀린 곳이 없네요.

2) The food at the restaurant \_\_\_\_\_ feel sick.
그 식당의 음식은 나를 메스껍게 만들었습니다.

1) looked over 2) made me



애슐리
강남YBM어학원 스피킹 전문 강사
넥서스토크스피킹실전문교사 10회 저자

WT 실용비즈니스 중국어회화 418

주균한의 특특 중국어 01.辞职 (사직...01)

A: 听说你要离开了?
[팅수오 니 야오 리카이 러?]
(tīngshuō nǐ yào líkāi le.)
그만둔다고 들었는데요?

B: 对啊，在这里很久，想换地方试试。
[뚜이아, 짜이 찌리 헨 지우, 상 환 띠팡 스프.]
(duì a, zài zhè lǐ hěn jiǔ, xiǎng huàn dì fāng shì shì.)
네, 여기 오래 있었기 때문에 다른 데 가 보고 싶어요.

A: 接下来有什么计划?
[지에사라이 요 셴마 지화?]
(jiēxià lái yǒu shénme jì huà?)
다음 계획이 있어요?

B: 还在想，还不确定。
[하이 짜이 상, 하이 뿌 취에핑.]
(hái zài xiǎng, hái bù què dìng.)
아직 생각 중이에요. 아직 정하지 않았어요.



주 균 한(조우권한)
대만 지용 출생
대만 중국문화대학교(中國文化大學) 한국어 학과 졸업
대만 게임회사 차이니스 게이머 한국팀 근무
대만 구국단중신학습센터(救國團終身學習中心) 한국어 전임 교사
imnelson1204@gmail.com

:: 주요 단어 ::

辞职: [cí//zhí] 사직하다
接下来: [jiēxià lái] 다음은, 이하는

确定: [què dìng] ①확정하다, 확실히 하다 ②명확하다, 확고하다

# 알립니다

## ● 2022년 5차 화주·물류기업 해외동반진출 지원

해양수산부는 해외 유망사업 발굴 지원, 국내기업의 글로벌 물류 시장 진출과 국내 화주기업과 물류기업의 해외시장 동반진출 활성화 및 양 업계 간 상생협력 풍토 조성을 위해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화주·물류기업 간 동반진출 협력과정에서 원자재 조달, 제품 생산·판매 등에 수반되는 물류 프로세스 및 공급망의 진단·분석·설계, 현지시장 조사 등에 필요한 공동 컨설팅 비용을 최대 50%, 4000만 원 한도로 지원한다. 참가를 원하는 기업은 11월 22일까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의 공고문에 따라 관련 서류를 담당자 이메일로 보내야 한다.

- 문의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제물류투자분석·지원센터
- 주소 : (49111) 부산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  
해운·물류연구본부 국제물류투자분석·지원센터
- 이메일 : chnayoung@kmi.re.kr, kdong@kmi.re.kr
- 홈페이지 : www.kmi.re.kr

## ● 2022년 5차 해운·물류기업 해외진출 타당성 조사 지원

해양수산부는 해외 유망사업 발굴 지원, 국내기업의 글로벌 물류 시장 진출과 국내 화주기업과 물류기업의 해외시장 동반진출 활성화 및 양 업계 간 상생협력 풍토 조성을 위해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국내기업의 글로벌 물류 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다양한 해외진출 투자사업 발굴 및 추진에 수반되는 타당성조사·분석을 지원한다.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물류기업 간 컨소시엄과 재무적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며, 대상사업 유형에 따라 1건당 최대 8000만 원 한도 내에서 조사비용의 50%를 보조한다. 사업 참가를 원하는 기업은 11월 22일까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의 공고문에 따라 관련 서류를 담당자 이메일로 보내야 한다.

- 문의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제물류투자분석·지원센터
- 주소 : (49111) 부산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  
해운·물류연구본부 국제물류투자분석·지원센터
- 이메일 : chnayoung@kmi.re.kr, kdong@kmi.re.kr
- 홈페이지 : www.kmi.re.kr

## ● 2023년 샌프란시스코 정보보안 전시회 한국관 참가모집

KOTRA는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사이버 보안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최신 정보보안 시장과 기술 동향 파악을 위해 '2023년 미국 샌프란시스코 정보보안 전시회(RSAC 2023)'에 한국관으로 참가할 기업을 모집한다. 선정된 기업에는 임차료, 장치비, 홍보, 통역 등을 지원한다. 전시회는 내년 4월 24일부터 27일까지 나흘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모스콘 센터에서 열린다. 참가를 원하는 기업은 11월 25일까지 글로벌 전시포털(www.gep.or.kr)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절차를 마치고 참가비 850만 원을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계좌(우리은행 1005-703-995682)에 입금하고 담당자에게 이메일(yjs@kisia.or.kr) 접수 후 유선(02-6748-2008)으로 안내해야 한다.

- 문의 : KOTRA ICT융복합팀
- 전화 : 02-3460-7464
- 이메일 : soony@kotra.or.kr
- 홈페이지 : www.kotra.or.kr

## ● 2023년 키즈스크린 서밋 애니메이션 기업 참가모집

한국콘텐츠진흥원은 한국 애니메이션콘텐츠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북미 최대 애니메이션 관련 네트워킹 행사인 '2023 키즈스크린 서밋(Kidscreen Summit) 애니메이션' 행사 참가기업을 모집하고 참가등록비, 상담공간, 홍보마케팅 등을 지원한다. 행사는 내년 2월 12일부터 15일까지 미국 마이애미 인터컨티넨탈 마이애미에서 개최된다. 참가를 원하는 기업은 오는 11월 21일까지 콘텐츠추출마케팅플랫폼 웰콘(welcon.kocca.kr)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 절차를 마쳐야 한다.

- 문의 : KOCCA 애니메이션산업팀
- 전화 : 061-900-6413
- 이메일 : friendly0209@kocca.kr
- 홈페이지 : www.kocca.kr

## ● 2022년 4분기 소프트웨어 국제화·현지화 지원사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중소기업의 소프트웨어 국제화 및 현지화를

지원하고 품질검증 등을 통해 국산 소프트웨어의 세계 시장 진출을 촉진하고 수출 증대를 지원하고자, '2022년도 4분기 소프트웨어 국제화 및 현지화 컨설팅 및 시험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모집한다. 소프트웨어 수출을 계획하고 추진 중인 모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국제화 및 현지화 컨설팅 ▷국제화 시험 ▷영어 현지화 시험▷일본 현지화 시험▷중국 현지화 시험 등의 분야를 모집한다. 참가를 원하는 기업은 11월 17일까지 담당자 이메일로 접수해야 한다.

- 문의 :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SW품질인증단
- 전화 : 010-5111-1316
- 이메일 : g11n@tta.or.kr
- 홈페이지 : www.tta.or.kr

## ● 월드클래스 프로덕트쇼 2022 수출상담회 참가모집

KOTRA는 우수 소부장·프리미엄 상품 생산 강소·중견기업의 GVC 진입 지원을 위해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과 중견기업 글로벌 지원사업 참여기업과 강소중견기업 선정기업을 대상으로 12월 1일부터 2일까지 불업코리아 연계 1대1 비대면 소싱상담회 'World-class Product Show 2022 수출상담회(GVC)'를 개최한다. 참가를 원하는 기업은 11월 18일까지 KOTRA 무역투자24 홈페이지와 세부참가 신청페이지(wcps2022.com)에서 접수해야 한다.

- 문의 : KOTRA 강소중견기업팀
- 전화 : 02-3460-7231
- 홈페이지 : www.kotra.or.kr

## ● [인천] 2022년 미국 아마존 입점 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

인천상공회의소는 인천 지역 소비재 중소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전문 컨설턴트를 배정해 미국 아마존 입점을 지원한다. 아마존 계정을 생성해 직접 제품을 판매하고 싶은 기업은 물론, 이미 계정을 보유하고 있으나 마케팅 지원이 필요한 기업도 신청할 수 있다. 선정된 기업에는 1대1 전문 컨설턴트를 배정해 각종 교육과 컨설팅, 입점 및 물류 대행을 진행하며 지원 규모는 업체별 420만 원이다. 참가를 원하는 기업은 오는 11월 18일까지 비즈오케이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절차를 마쳐야 한다.

- 문의 : 인천상공회의소 국제통상실
- 전화 : 032-810-2831
- 홈페이지 : bizok.incheon.go.kr

## ● [인천] 2022년 B2B 온라인마케팅 지원사업 참가모집

인천상공회의소는 B2B 온라인플랫폼 콤파스를 통해 해외 온라인 마케팅이 필요한 인천 내 업체를 지원한다. 플랫폼 내 기업별 글로벌 전시관과 인천 공동관을 구축하고 6000만 글로벌 바이어 정보를 기반으로 관심 바이어를 발굴하며 전략지역 타겟마케팅과 1대1 수출전문가 컨설팅, 시장조사 등을 420만 원 한도로 지원한다.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오는 11월 18일까지 비즈오케이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절차를 마쳐야 한다.

- 문의 : 인천상공회의소 국제통상실
- 전화 : 032-810-2832
- 홈페이지 : bizok.incheon.go.kr

## ● [경기] 2022년 신형시장 진출 지원 프로그램(필리핀)

경기콘텐츠진흥원은 경기도 내 게임기업을 대상으로 글로벌 신형시장에 대한 경기도 게임의 해외진출 활성화와 현지의 게임 관계사와의 네트워크 구축을 도모하기 위하여 현지 게이머 초청 게임 테스트 진행, 비즈니스 상담회, 게임기업 방문 시 항공 및 숙박비용 등을 지원한다. 12월 6일 출국해 7일 현지기업을 방문하고 전문가 세미나 행사에 참가한 뒤 8일 포커스 그룹 테스트를 진행하고 9일 1대1 비즈니스 상담회 후 귀국하는 프로그램이다. 참가를 원하는 기업은 오는 11월 20일까지 경기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 공고 내 구글 폼 링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 문의 : 경기콘텐츠진흥원 게임·디지털혁신팀
- 전화 : 031-776-4783
- 이메일 : dhkang@gcon.or.kr
- 홈페이지 : www.gcon.or.kr

## ● [충북] 베트남 하노이 무역사절단 참가기업 모집

충북테크노파크는 충청북도 중소중견기업 수출전략육성을 위해 신남방 이머징 마켓 베트남에 대한 수출확대 및 신규 거래선 발

굴을 지원하고자 '베트남 하노이 무역사절단' 참가기업을 모집한다. 사절단은 오는 12월 14일부터 17일까지 나흘간 하노이 현지를 방문해 협력기관 교류와 현지 시장조사, 뷰티케어 박람회, 바이어 현장방문, 수출전략세미나, 수출상담회 등에 참여한다. 참가기업에는 세계한인무역협회(월드 OKTA) 하노이 지회의 네트워크 협력을 통한 맞춤형 글로벌 사업화를 추진한다. 참가를 원하는 기업은 11월 18일까지 충북테크노파크 컨택센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절차를 마쳐야 한다.

- 문의 : 충북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기술사업화팀
- 전화 : 043-270-2230
- 이메일 : jopoint@cbtp.or.kr
- 홈페이지 : contact.cbtp.or.kr

## ● [전남] 2022년 하반기 우수상품 품평·수출상담회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는 전라남도 농수산식품 우수상품의 국내외 유통 채널 판로개척 지원을 위해 도내 농수축산식품 및 가공식품 생산 업체와 바이오소재 기업 등을 대상으로 '2022년 하반기 우수상품 품평·상담회' 참가를 지원한다. 행사는 오는 11월 29일 여수엑스포 컨퍼런스홀에서 열리며 참가기업 개별 부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참가를 원하는 기업은 11월 18일까지 담당자 이메일로 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신청서를 다운로드받아 제출해야 한다.

- 문의 :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 전화 : 061-661-1953
- 이메일 : jesung88@ccei.kr
- 홈페이지 : ccei.creativekorea.or.kr

## ● [경북] 2022년 2차 수출기업 통상경쟁력 강화지원

경상북도경제진흥원은 경북 도내 내수기업과 초보 수출기업을 발굴해 수출 글로벌 기업으로 육성하고자 외국어 홍보물 제작, 해외 전시 개별참가, 수출보험료 등 수출마케팅 종합지원사업 소요금액의 50%를 지원한다. 전년도 수출금액 100만 달러 미만 기업은 500만 원, 500만 달러 미만 기업은 800만 원, 1000만 달러 미만 기업은 1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참가를 원하는 기업은 12월 2일까지 경상북도경제진흥원 홈페이지 공고문대로 관련 서류를 담당자 이메일로 접수해야 한다.

- 문의 : 경상북도경제진흥원 마케팅팀
- 전화 : 054-470-8561
- 이메일 : kdhyjsh@gepa.kr
- 홈페이지 : www.gepa.kr

## ● [부산·경남] 융복합 스포츠기업 CES2023 참가지원

부산테크노파크는 부산·경남 소재 ICT·스마트 헬스케어 기반 융복합 스포츠산업 관련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라스베가스 국제 전자제품박람회(Consumer Electronics Show 2023, CES 2023)' 참가기업을 모집한다. 선정된 기업에는 부스임차비, 부스장치 및 기본비용, 해외 바이어 발굴 등을 지원한다. CES 2023은 내년 1월 5일부터 8일까지 나흘간 개최된다. 참가를 원하는 기업은 11월 18일까지 부산테크노파크 스포츠융복합사업단(smarthealth.or.kr)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절차를 마쳐야 한다.

- 문의 : 부산테크노파크
- 전화 : 051-974-9072
- 이메일 : comettrue@btp.or.kr
- 홈페이지 : www.btp.or.kr

● <한국무역신문>에서는 기관이나 단체, 지자체, 기업들의 행사, 이벤트, 모집 등의 공고를 접수합니다.  
 ■ Tel : 02-6000-3124 Fax : 02-6000-3122  
 ■ E-mail : wtrade07@gmail.com



한국무역협회  
FTA종합지원센터

차이나데스크  
한중FTA 원스톱 서비스  
fta1380.or.kr

# “ 차이나는 중국 수출, 차이나데스크 현장방문컨설팅 ”

## 차이나데스크 현장방문컨설팅은

① 한·중 FTA/RCEP 활용 ② 중국/RCEP 회원국 인증 획득 ③ 지재권 보호 및 계약서 작성  
④ FTA원산지 관리시스템 활용 등 중국/RCEP 수출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전문가가 직접 방문하여 맞춤형 상담을 제공합니다.



### 맞춤형 컨설팅

현장방문 컨설팅은 10일(MD, Man Day) 범위 내에서 이용 업체가 필요한 컨설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기업 부담금

매출 50억원 이하의 기업은 무료이며 50억원 초과기업은 매출규모에 따라  
컨설팅 비용(1MD당 평균 40만원)의 10 - 50% 차등 적용됩니다.



### 신청방법

FTA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TEL : 국번없이 1380 E-mail : chinadesk@kita.net  
Homepage : fta1380.or.kr

전국 어디서나  
FTA 활용지원 OK

1 3 8 0

차이나데스크는 한중 FTA/RCEP 활용 및 대중 수출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원스톱 제공합니다.

- ① 한·중 FTA/RCEP 활용 상담 컨설팅
- ② 중국/RCEP 회원국 인증 상담
- ③ 비관세 장벽 애로 해소 지원
- ④ 중소기업 원산지 관리 지원
- ⑤ 중국시장 동향 및 정보 제공